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511호] 2020년 10월 15일

02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
연탄창고에서 시작…부도 극복하고 1조 소재 기업으로

03 총동창회 첫 조찬 포럼
최재붕 교수 포노사피엔스 강연

04~05 논설위원 15인의 추천 도서
집콕 시대, 일독을 권합니다

16 우린 서울대 가족입니다
이윤경 CM병원 대표 가족

성기학·김기남 동문 2020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열린 모교 제74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오세정 모교 총장, 수상자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대리 수상자 부인 민계완 씨, 이희범 본회 회장, 성기학 동문 차녀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 사진=모교 소통팀

개학 125주년·개교 74주년 기념식

모교(총장 오세정)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과 김기남(전자공학77-81)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정했다.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320호에서 열린 개학 125주년·통합개교 74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했다.

성기학 동문은 의류 제조·수입 기업인 영원무역을 설립하고 아웃도어·스포츠 제품에 주력해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지에 현지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모교에 곧 준공될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30억원을 비롯해 장학금과 학술연구기금으로 거액을 쾌척했다. 국내외에 자사 의류와 물품을 기부하며 사회봉사를 펼쳤다.

김기남 동문은 UCLA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0년 이상 반도체 사업부에서 한우물을 팠다. 많은 메모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반도체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과 설계 분야에서 유수의 기술을 확보했다. 모교와는 삼성전자 서울대 공동연구소 설립과 인공지능반도체공학융합전공 지원 등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했다.

성기학 동문은 "50년 전에 졸업했지만 학생들이 좀더 폭넓은 교육을 받고 교류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해왔다"며 "서울대의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김기남 동문을 대신해 수상한 부인 민계완 씨는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남편은 항상 서울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여러 선후배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모교는 1991년부터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들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관악춘추

창의 인재 모이는 '플랫폼 대학'으로

김광덕
정치82-86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본지 논설위원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 정답이 없다. 비밀이 없다. 공짜가 없다."

최근 한 모임에서 정치학과 후배인 한 국회의원이 건배사 도중에 우스개로 한 얘기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귀에 쏙 들어왔다. 내가 다니는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주최한 '미래 컨퍼런스' 행사의 주제와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모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이 행사에서 '정답'만 추구하는 교육제도의 구속을 파괴해야 창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모범답안을 쓰는 것보다 질문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다. 이 교수는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에서 '중학생 수준의 학생에게 낼 질문을 써보시오'라는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그는 발상의 전환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연구실에서 TV를 거꾸로 설치해 시청하고 있다.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는 '미존(未存)학'이란 과목을 개설한 것도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단순한 지식과 경험만 갖고는 7부 능선까지 갈 수 있지만 9부 능선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다. '창의력', '상상력' 등으로 완전 무장해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경제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가 "한 나라의 진정한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적 상상력에 있다"고 설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했다.

창의력은 민족의 운명도 좌우한다. 전 세계 인구 70억명 가운데 유대인은 1,700만명가량으로 0.2%에 불과하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은 무려 23%에 달한다. 미국 100대 부호 중 유대인 비율도 20%에 이른다. 유대인이 성공한 첫째 비결로 질문과 토론을 중시하는 창의력 교육이 꼽히고 있다.

영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재를 키우고 '과학기술 초격차' 전략을 펴는 길밖에 없다. 반도체, 바이오 등 최소한 5~10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려면 서울대 동문들부터 끈기를 갖고 창의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서울대 입학생 중 대부분은 모범답안을 잘 써서 합격했을 것이다. 서울대는 정답만 잘 쓰는 학생이 아니라, 도전정신을 갖고 용기 있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 관악캠퍼스를 전 세계의 핵심 두뇌들이 모여드는 '인재 플랫폼 대학'으로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K드림팀'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알 림 11월 2일 홈커밍데이 겸 동문 화합 한마당 온라인 개최

올해 41번째를 맞이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처럼 모교 캠퍼스에서 동문님들이 모일 수 없어,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행사로 개최합니다. 동문이 직접 촬영한 축하 메시지·축하 공연 등 여러분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0년 11월 2일(월요일) 오전 11시
- 방송채널 : 총동창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 행사내용 : 모교 및 총동창회 현황 보고, 동문 축하 메시지 및 재능기부 영상,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검색→실시간 스트리밍 보기**

● 본 행사에 협찬해 주실 분은, 아래로 협찬금(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찬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이름, 학과, 입학연도 표기)
- 협찬품을 지원해 주실 동문님은, 사무처 02-702-2233으로 연락 바랍니다. 보내주신 협찬품은 행운권 추첨하여, 동문님께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익명의 동문 3,000만원 기부

지난 9월 15일 익명의 여성 동문이 본회에 장학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심리학과를 졸업한 해당 동문은 거액의 기부에도 불구하고 익명 보도를 요청하며 겸양을 표했다. 본회 홈커밍데이 찬조금도 꾸준히 후원하며 본회 활동을 도운 동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9월에도 다수의 동문이 장학금 기부자 대열에 동참했다. 9월 3일에는 최승권(체육교육75-79) 전 용인대 특수체육교육과 교수가 100만원을 기부했으며, 9월 25일 이범직(역사교육65졸) 전 건국대 사학과 교수가 100만원을 기부했다.

윤광선(의학68-75) 윤내과의원 원장이 9만원, 정재택(건축58-64) 전 공간건축사사무소 감리단장이 3만원을 후학을 위한 장학금에 보탰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오정인(대학원87-96) 동문은 매달 1만원씩 기부를 약정하고 첫 기부금을 보내왔다.

장학금 기부 참여하려면

본회 장학금은 월정기부(일정금액을 나눠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신청서 작성 후 우편·팩스·이메일 송부)와 정액기부(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a.or.kr **전화** 02-879-8288
계좌번호 (예금주: 재단법인 관악회)
※ 무통장 입금시 성명, 입학연도 기재바랍니다.
신한 140-006-909438　　농협 069-01-272391
우리 1005-202-771270

독자 편의를 위해 글자를 키웠습니다

*총동창신문을 2부 이상 받는 가정 중 불필요한 부수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문의 : 02-702-2233

연탄창고에서 시작…부도 극복하고 1조 소재 기업으로

이부섭 동진쎄미켐 회장

프로필

△1956년 경기고 졸업
△1960년 모교 화학공학과 학사
△1962년 모교 화학공학과 석사
△1963년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부장
△1967년 동진쎄미켐 창립
△1998년 제31회 과학의 날 대통령상 기술상 수상
△1999년 제3회 한국공학기술상 수상
△2002년 한국공업화학회 회장
△2006년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9년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
△2011년 서울대발전공로상
△2012년 한국벤처창업대전 대통령상 수상
△2014년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2019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과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위

국내 소재 산업의 산 역사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앞장
모교에 50억 발전기금 쾌척
"산업 핵심은 과학기술 인재"
14살 6·25 전쟁 시절 겪은 고난
현재 동진쎄미켐 만든 밑거름

우리나라 소재 산업의 역사인 이부섭(화학공학56-60) 동진쎄미켐 회장을 뒤늦게 찾았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오래전부터 만들며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온 기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도, 50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쾌척했을 때도, 공과대학 동창회장으로 선출됐을 때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인터뷰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며 사양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상암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동창회 일행에게 저녁 식사까지 4시간을 할애했다. 인터뷰 장소에 놓인 칠판에는 태어난 시기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연표가 빼곡했다. 동진쎄미켐 50년사를 정리한 작가도 대동했다. 사전 질문지의 답변은 A4 35장에 달했다. 하면 확실하게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인생의 한 시기만 이야기해도 하루가 걸릴 텐데 괜찮겠냐"며 사람 좋은 웃음을 띠며 동창회 일행을 맞이했다.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현황부터 정통 엔지니어 기업가가 걸어온 삶에 관해 묻고 들었다.

-건강해 보이세요. 늘 웃는 인상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 보인다니 감사합니다. 등산을 좋아해요. 서울 근교에 아름다운 산이 많잖아요. 간간이 골프도 즐기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발포제와 반도체 및 전자재료를 만들기 위해 신규 해외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증설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만.

"내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면적 1,100평 규모로 짓고 있어요.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고 제조 환경을 클린룸(Cleanroom)화 해 10nm(1나노미터=10억분의 1m) 미만의 반도체 회로 구성에 맞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포토레지스트 제조 능력은 연간 15만 갤런인데, 신규 공장에서는 연간 40만 갤런 이상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내 연간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이 약 70만 갤런이고 전 세계로는 250만 갤런으로 추정합니다."

-동진쎄미켐의 매출 규모가 궁금합니다.

"2019년 내부 기준 전체 계열사 총 매출은 약 9,900억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내부 기준 1조 2,000억원을 예상합니다. 임직원은 해외 인력을 포함해 1,940명이고요. 국내 7개, 중국 13개, 대만, 인도네시아 총 22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 비율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60%, 디스플레이용 포토레지스트 30%, 발포제 10% 정도 됩니다. 발포제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80% 이상을 일본 제품에 의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국산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10nm 이하 포토레지스트와 10nm 이상급으로 나눠질 텐데, 정밀한 10nm 이하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일본 제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고 실험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공장에서 고품질의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게 될 겁니다. 5년 이내에 불화아르곤(ArF) 포토레지스트 등 고성능 재료의 국산화율을 50%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의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 원재료인 웨이퍼 위에 뿌리는 감광액이다. 회로를 그린 마스크를 웨이퍼 위에 씌우고 빛을 쏘면 회로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포토레지스트를 바른 부분은 사라진다. 옛날 필름에 발라진 감광액과 같은 원리다.

이 회장은 1962년 모교 대학원에서 '감광성 수지에 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포토레지스트가 전문 분야인 셈이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화학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당시 취업이 쉽지 않음에도 화학공학을 소신 있게 선택한 배경이다. 경기고 시절 화학반 반장을 맡아 화장품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었다. 10월 개교기념일을 앞두고 수소가스를 넣은 풍선에 화학반 소개 플래카드를 띄워 홍보하기도 했다.

-동진쎄미켐 설립은 1967년인데, 대학원 졸업 후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첫 직장은 대한사진화학공업사였습니다. 인화지를 만드는 회사였죠. 첫 월급이 5,000원이었어요. 특별보너스로 1만원을 더 주긴 했지만,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회사원으로 동기부여를 찾기 어려워 이듬해 그만두고 한국생산성본부의 기술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급 3만7,000원으로, 당시 사정으로는 상당히 높고, 활동 범위도 넓었습니다. 공무원 국장급 대우를 받은 거죠. 문제는 산업 분야가 너무 넓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실상 책상에서 일 없는 날이 많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이 못돼 견디기 힘들더군요. 그러던 중 한국사진필름의 공장장 자리를 제의받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나 만지는 것보다 실험실에서 인화지를 만드는 신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회사를 옮겨 젊은 공장장으로서 인화지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그만두고, 이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유학 생각도 했어요. KIST 원장을 지낸 김은영 동기와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에서 공부할 계획으로 탄광 광부로 지원하려고도 했지요. 당시 독일까지 운항하는 민간 비행기가 없었는데, 탄광 광부에 지원한 사람만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사무실에 인터뷰 갔다가 생산성본부에 있을 때 모셨던 본부장이 계셔서 혼비백산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분이 그 일도 관여하셨던 것 같아요. 김은영 동기 혼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지요. 이후 사업으로 뜻을 굳히고 젤라틴, 에폭시 수지 추출 사업, 폴리스타일렌 개발 등을 했지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팔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집 연탄창고에 실험실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갖고 있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으셨지요.

"사업 초기 석유화학제품 관세 철폐로 폴리스타일렌 제조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폴리스타일렌의 원료인 스타일렌모노머의 특별관세는 그대로 둔 채 폴리스타일렌 관세만 없애면서 원료값은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업 10년까지 다섯 차례 이사를 했던 일입니다. 폐수 등의 문제로 연희동-불암동-시흥동-길동을 거쳐 1975년 인천 주안에 인천공장을 건설해 드디어 정착하게 됐죠.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계속 옮겨야 하는 일이 무척 고달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 화재사건도 있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70년대 말 오일쇼크로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입니다. 제2차 석유파동으로 PVC산업과 신발산업의 불황은 관련 업계의 도산으로 이어졌지요. 특히 국내 주요 거래처였던 대동화학이 부도를 내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동화학과 2억원 한도의 융통어음을 서로 바꿔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음 결제일이 되면 두 배로 갚아야 했죠. 결국 부도를 맞고 198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친구의 도움과 운으로 위기를 극복해 그해 12월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법정관리는 1989년 해제하게 됐고요. 지구력과 담력으로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화학도에서 사업가로 변신해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6·25 전쟁 중이던 중학생 시절 소중한 경험이 있다.

"1950년 6월 5일 경기중학교에 입학하고, 20일 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으나,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됐죠.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점령했으나 10월 중순, 30만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급습해 유엔군이 패퇴하게 되면서, 그 당시 기찻길 위로 피난을 오는 사람들이 줄지어 내려오고, 이후 혼란한 전황 속에서 크리스마스날, 마차를 타고 피난 가게 됐습니다.

동빙고동 방향으로 가면 강이 꽁꽁 얼어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다고 해 그리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수, 조카 두 명, 큰누이 등 7식구가 마차에 쌀과 밥 해 먹을 그릇, 이부자리 등 소가 끌 수 있을 만큼 다 싣고 가고 저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위로 두 형이 있었으나 인민군 점령시 큰형은 북한군에게 납치돼 이북으로 끌려가다가 돌아가시고, 작은 형은 국군에 편입돼 복무 중이었어요. 강을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얼음이 잘 얼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가 짐이 잔뜩 실린 마차를 끌면 바퀴 부분을 따라 얼어붙은 바닥이 '우지지직' 하고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요. 이러다 물에 빠져 다 죽겠다 싶었죠. 다행히 추운 날씨 덕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조금만 따뜻했더라면 피난 가다가 모두 강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1951년 1월 4일(1·4후퇴), 서울이 재점령당했습니다. 전선은 평택, 오산까지 밀렸고, 우리 가족도 진천을 지나 증평까지 가서 피난 생활을 했지요. 같은 해 4월쯤 모를 내야 하는 시기라, 아버지가 아직 한강에서 정식으로 도강을 허가하지 않아 야미배(밀항선)가 있다고 둘이 먼저 서울로 올라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2~3일을 기다리다가 쌀이 떨어져 하는 수없이 명아주 풀을 뜯어다 죽을 끓여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겨우 새벽에 도강에 성공해 용산 근처 한강 북쪽에 도착했습니다. 연희동까지 또 한나절을 걸어와 집에 도착해서 보니 그 많던 쌀, 벼가 싹 다 없어졌더군요. 피난민들이 다 가져간 거죠.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행주에 계신 고모에게 벼를 얻어다 쌀을 만들어 끼니를 이어가며 모낼 궁리를 하니 이것도 너무 막연했습니다.

6월이 되어 모내기 철이 왔는데, 1만 2,000평(60마지기)이나 되는 논에 모내기를 하려면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전쟁 중에 가산이 풍비박산 난 상황에서 품삯을 줄 돈이 없었어요. 집안엔 아버지, 어머니, 저 셋뿐. 큰형은 민족청년단장으로 일하다가 인민군에 끌려가 돌아가셨고, 작은형은 국민방위군으로 들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전시상황이었으니까요. 돈을 벌 사람은 저뿐인 거예요.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워대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아버지를 보다 못해 돈을 벌어 모를 심을 수 있는 인력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유엔군이 서울 문산까지 진격해 있는 상황이라 초콜릿, 껌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져다 장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어머니께 설명하고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죠.

어머니는 돈을 실크 인조견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서 허리춤에 꽉 묶어주셨습니다. 금촌에서 문산까지 가려면 차에서 내려서 샛길을 한참 걸어가야 했는데 걷다 보니 무언가 허리 쪽이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그 중요한 보자기가 없어진 겁니다. 어머니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자기에 싸주신 것이 이렇게 될 거라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미끌미끌하여 스르륵 풀린 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거죠. 결국 걸어왔던 샛길을 따라 금촌역까지 가서 다시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전 재산이 다 없어져 빈털터리가 됐고, 가다 보니 날은 어두워지고. 근처 농가가 하나 보여서 찾아가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어린 중학생이 도둑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지 밥도 못 먹고 굶은 저에게 저녁을 차려주셨고, 하룻밤 재워도 주셨어요. 돈도 잃고, 잠도 겨우 자는 마당에 편히 잠이 왔겠어요. 결국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 주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터덜터덜 문산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이러한 사정을 물건을 판 분에게 말하니 '고생이 많았구나' 하며 물건을 외상으로 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 재산을 잃어버려 세상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줘서 그때 그것이 큰 고마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군용열차를 타고 그 물건을 가져와 남대문 시장에 가

“스마트폰 막고 공부만 시켜서는 우수 인재 만들 수 없다”

지난 10월 8일 반포동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본회 첫 번째 월례 조찬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50명 이내로 진행됐다(사진 왼쪽). 이날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를 주제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강연했다(오른쪽).

최재붕 교수 포노사피엔스 강연

본회 이희범 회장 취임 직후 동창회 4대 비전 중 하나로 내세운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가 첫걸음을 시작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동문들에게 신선한 깨달음을 주는 강연을 통해서다. 본회는 지난 10월 8일 오전 7시 30분 반포동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첫 번째 월례 조찬포럼을 열고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를 주제로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의 강연을 진행했다.

조찬포럼은 매월 두 차례 본회가 진행하는 학습 모임의 일환이다. 조찬포럼은 ‘SNUA 이목회’라는 이름으로 매월 2번째 목요일에, 수요특강은 매월 4번째 수요일에 ‘SNUA 사수회’라는 이름으로 아침을 활용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강의 주제, 강사 선정 등 포럼과 특강 관련 사항은 학습위원회(가칭)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습위원회는 문용린(교육67-71) 전 교육부장관과 김인규(정치69-73) 경기대 총장이 공동위원장, 오용호(행정69-73) 전 코트라 사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동문들의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지난 8월 첫 강연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태 급변 탓에 이달 조찬포럼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규모를 축소, 오세정(물리71-75) 총장과 조완규(생물48-52 본회 고문) 전 모교 총장, 문용린 학습위원장 등 동문 50명 이내의 인원이 참석하고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중계했다.

이날 이희범 회장은 “조찬포럼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인 것 같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동안 추진했던 행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된 것을 설명하며 “모임을 열기로 하고 취소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주관하는 쪽도 괴로웠고 참석 신청했던 동문들도 불편했을 줄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조찬포럼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스태프 포함 50인 이내로 맞추려 애를 썼다”며 “회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동창회도 정상궤도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은 축사에서 “인원 제한 때문에 조촐하게 시작했지만 조찬포럼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제 동창회가 43만 동문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같이 배우고, 취미를 같이 하는 모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용린 학습위원회 위원장은 학습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며 “이희범 회장님의 열정과 에너지로 앞으로 조찬포럼과 동창회 모임이 아주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자 최재붕 교수가 최문환(대학원62졸) 전 모교 총장의 조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최재붕 교수가 연단에 섰다. 최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책은 ‘포노(PHONO) 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지난 10년간 급격한 시장 변화를 이끌었다는 내용으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대변하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통달한 세대라는 뜻.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또 다른 정의다.

최 교수는 후속 저서인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의 내용을 중심으로 “포노 사피엔스가 이끄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교체기인 지금, 내 마음의 표준부터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포노 사피엔스가 바꿔놓은 시장의 판도와 교육, 인재상, 콘텐츠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들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첫 예시는 시니어 동문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BTS. 자본과 방송이 가수를 키웠던 예전과 달리, 팬덤의 자발적 홍보와 SNS를 등에 업고 성장한 이들의 사례를 앞세웠다. 시가총액이 1,500조원을 돌파한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한 기업들이 세계 기업 순위 최상위를 휩쓸고 있는 것도 짚었다. “반찬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목 좋은 자리가 아닌 쇼핑몰과 배달 시스템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그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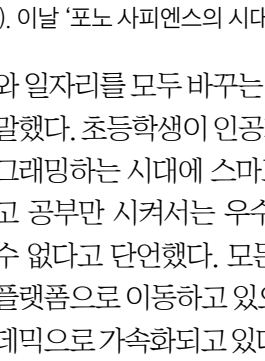
그는 포노 사피엔스가 “배운 게 다르니 상상하는 것도 다르다”며, 세계 경제와 일자리를 모두 바꾸는 혁명세대라고 말했다. 초등학생이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래밍하는 시대에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공부만 시켜서는 우수 인재로 키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모든 부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금의 엄청난 기술의 디테일에 콘텐츠가 보여주는 엄청난 팬덤 파워만 넣으면 이번이야말로 도약의 기회”라며 “대한민국의 지금을 이끌어 주신 리더 분들이 마음의 표준을 바꾸시고, 미래를 열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응원한다”며 강의를 끝맺었다.

본회 조찬포럼과 수요특강은 올해 연말까지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조찬포럼은 참가비(5만원)가 있고, 수요특강은 참가비 없이 사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다. 오는 10월 28일 아침 공덕동 장학빌딩에서 예정된 첫 번째 수요특강은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의 저자 양돈선(행대원76-78) 동문이 강연한다. 모든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다.

박수진 기자

‘디지털문명에서 생존하려면 이 아홉 가지 기억하라’
최재붕 교수의 ‘CHANGE 9’



이날 강연 내용은 최 교수의 저서 ‘포노 사피엔스’와 ‘포노 사피엔스 코드 CHANGE 9(이하 CHANGE 9)’를 압축한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 ‘신체의 일부처럼 슬기롭게 폰(PHON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성균관대 졸업 후 캐나다 워털루대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최 교수는 공학자로서 인류 문명사의 변화를 탐지해 비즈니스의 미래를 읽는 연구를 하고 있다.

저자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벌도, 혈연도, 지연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포노 사피엔스가 이끌어 가는 새로운 문명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언어와 다름없는 아홉 가지 코드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메타인지 △이매지네이션(상상력) △휴머니티 △다양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복탄력성 △실력 △팬덤 △진정성이다. 본회는 이날 강연 참석자들에게 ‘CHANGE 9’ 한 권을 증정했다.

대담:
하임숙 (영문91-95)
동아일보 산업1부장

서 전부 다 팔았습니다. 약 5배는 남기고 본전을 찾아 외상으로 받은 돈을 다음날 가서 다 갚았죠. 그렇게 미제 장사를 하며 돈을 벌어와 인건비를 다 해결, 모내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부모님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표현에 서투른 아버지는 ‘고생했다. 네 덕에 잘 마쳤다’ 한마디 말씀하셨지만 떠올려보면 그때 나를 포근히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칭찬해주셨다면 어린 나이에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긴 이야기를 마친 이 동문은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밤을 새우며 위기를 극복하고 집의 그 큰 논에 모내기 작업을 마쳐 그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한 사건은 그 후 사업경영에 끈기있는 노력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효시였다고 생각한다.이러한 단련된 투지력이 없었다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도움도 많았습니까?

“경기고, 서울대 동기들이 큰 힘이 됐죠. 예전에는 화공과를 나와서 갈 곳도 없었어요. 한국의 산업이 그만큼 경공업 위주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들 산업은행 기술평가역으로 가 있어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도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게 된 계기도 지도 교수이신 심정섭 선생님의 도움과 같은 전공을 한 선배 친구 후배들의 합작품입니다.”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위원장 등이 고등학교 동기다. 아남의 김주채 회장,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과는 요즘도 골프를 즐긴다.

-과학기술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공과 5회 졸업생이신 고 오원철 선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 제2수석비서관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포항에 포항제철, 울산에 석유단지, 부산 거제의 조선단지부터 목포, 군산, 구미, 서산, 반월, 인천 남동에 주요 단지를 설계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닦으신 분입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산업이 커온 것을 보면 그 분의 능력에 감읍 벅찬 긍지를 느낍니다.

당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원철 비서관에게 ‘자네는 포항제철부터 시작해 울산, 마산, 부산, 여수, 인천 등 다 돌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밤낮으로 회의를 해서 그 장대한 계획을 수립했나?’ 하고 물으시니 오원철 비서관께서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매일 광화문과 종로 사이에 있는 큰 음악감상실 다방을 빌려 썼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박 대통령께서 ‘무어야! 국가 사항을 다방에 모여서 했다?!’ 하시며,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을 당장 구하라고 명령받아 오 비서관이 찾은 곳이 그 당시 삼청동에 있었던 외무부 장관 공관이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의 공관은 더 좋은 한남동으로 이전시키고, 삼청동 그곳이 이른바 그 당시 한국 엔지니어스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장 먼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 혁신을 이루어낸 주체가 바로 1950년대 초반부터 이공대학을 졸업해서 산업계에 투신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분야 등 우리 기업들에 몸담았던 엔지니어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산업의 핵심요소가 과학기술과 인재입니다. 과학기술이 기업의 본질이라면 인재는 기술의 원천입니다. 어떠한 신기술 개발도 사람의 노력과 우수한 인재 확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충분한 재원을 투자하여 산업계의 인재를 키우고 배출해내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을 존중하고 기술자를 우대한 나라는 선진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했으며, 기술을 천대하고 기술자를 탄압한 나라는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이 불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6·25라는 민족적 비극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특히 중학생 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제 물건을 팔아 기어코 부모님께서 모내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드린 경험을 통해 끈기와 인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훗날, 사업을 시작해서 1980년대 오일쇼크가 터져 부도를 맞았을 때도 굴하지 않고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홍역을 치른 덕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우리 정신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련된 정신이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그 다음엔 큰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늘도 돕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본연의 위치에서 평상시 꾸준히 노력한다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정리=김남주 기자

2020년 10월 15일 제511호

“코로나로 우울한 가을

본지 논설위원 추천 도서

‘시간이 없어 책 못 읽는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요즘이다. 집콕 권하는 시대, 비록 넷플릭스와 유튜브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있지만 여가에 책 읽기를 택하는 사람들은 꾸준하다. 좋아하는 책의 표지를 올리는 ‘북커버 챌린지’도 SNS 유행 중이다. 코로나19 시대의 고독을 사유의 땔감으로 승화시켜 줄 양서를 어떻게 찾을까. 매일 읽고 쓰는 근육을 단련하는 현직 언론인에게 물었다. 본지 논설위원 중 15명이 집콕 시대에 추천하는 책과 이유, 밑줄 그은 구절을 소개한다. 정리=박수진 기자

장구한 20세기 역사, 영혼을 입다

모던타임스(전 2권)

폴 존슨(조윤정 옮김) / 살림

20세기 역사에 ‘영혼’을 불어넣은 책이다. 이 때문에 개인 생각에 따라 가끔 동의하기 힘든 서술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세기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두 권 합쳐 1,500페이지를 넘는 분량임에도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과 대화하는 즐거움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기 힘들다.

밑줄: “학문의 정치화는 우편향이든 좌편향이든 진리의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다.”

“군사력 있어도 결단력 없으면 패배한다.” “냉전이 시작된 곳은 폴란드이고, 완성된 곳은 한국이다.”

“역사에서는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중요하다.”

“국가는 20세기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실패자이다.” “역사는 인류의 오만을 치유할 강력한 해독제이다.”

이용식(토목공학79-83) 문화일보 주필

소설보다 재밌는 스파이 실화

기드온의 스파이(전 2권)

고든 토마스(이병호 옮김) / 예스위캔

국가안보를 위한 진짜 스파이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소설보다 재미있는 실화가 두 권 책 속에 꼭꼭 눌러 담겨 있다.

밑줄: “추모관은 557명의 이스라엘 정보계 요원의 순직을 기리고 있다. 벽에는 희생자의 이름과 사망일자만이 새겨져 있다. 희생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

김창균(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주간

약자가 강자를 이긴 비결은 의지

제2차 세계대전(전 2권)

윈스턴 처칠(차병직 옮김) / 까치

제2차 세계대전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전 드라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처칠이고, 처칠은 모든 점에서 약세였던 민주주의 영국이 전체주의 히틀러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와 방법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비결을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의지를 추천하고 싶다.

밑줄: “우리는 히틀러와 대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1941년 6월 22일 처칠의 대국민 방송연설,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자 영국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전영기(정치80-84) 중앙일보 논설위원

잠 못 드는 밤 사색의 길잡이

밤의 사색

헤르만 헤세(배명자 옮김) / 반니

코로나19로 홀로 사색할 시간이 많다. 잠 못 들고 뒤척일 때 한 장 한 장 넘기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밑줄: “나는 삶을 행복으로 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삶은 오로지 깨어 있는 의식을 통해서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최대한 많은 행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최대한 깨어 있는 의식으로 살고자 한다.”

박종성(서양사82-86) 경향신문 논설위원

3대의 삶에 녹아든 중국 현대사

대륙의 딸

장융(황의방 등 옮김) / 까치

격동의 중국 현대사를 녹여낸 자전적 소설. 외할머니, 어머니, 딸(화자) 3대에 걸친 이야기다. 군벌 장군의 첩이었던 외할머니, 남편과 함께 열혈 공산당원이었던 어머니, 문화혁명 때 홍위병에 가담했던 딸의 가족사를 다룬 실화다. 특히 혁명에 헌신했던 한 가족의 삶이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어떻게 파괴돼 가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은 숨막힐 정도의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해석만 번지르르한 추상적 역사가 아닌 삶이 살아 숨쉬는 역사 이야기여서 생동감이 펄떡거린다. 찬양 일변도의 박제화된 혁명이 아닌 인간의 열정과 파멸이 동시에 담긴 현실 속 이야기다. 실감이 나기에 재미도 있고 역사 공부에도 도움 되는 책이다.

처음 읽은 것은 약 20년 전쯤이었는데 작년에 다시 읽었을 때는 20년 전보다 책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보이고, 공감되는 지점도 그때와는 살짝 달라졌음을 느꼈다. 세상을 보는 눈이 그만큼 입체적이 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이 책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92년 영국 논픽션 최고상’, ‘93년 올해의 책’ 선정, ‘약 30개 나라 언어로 번역된 보편성’으로 대신한다.

밑줄: “나는 과거의 삶을 한 번 힐끗 되돌아본 뒤 미래로 향했다.”

방문신(경영82-89) SBS 논설위원

초원의 지배자 늑대의 재발견

늑대토템(전 2권)

장룽(송하진 옮김) /김영사

코로나로 방콕하며 서가를 정리하던 중 발견, 쓰레기장으로 가려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책이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몽골초원으로 ‘하방’당한 지식청년 장룽이 11년간 몽골초원에서 생활하며 관찰한 일을 소설 형식으로 썼다. 늑대의 강인한 생명력과 뛰어난 지략이 유목민족 정신의 근간을 이뤘음을 보여주며 농경민족인 한족이 번번이 유목민족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동시에 이 책은 한편의 탁월한 생태보고서다. 초원에 서식하는 들쥐, 토끼, 마모트, 가젤, 양, 말의 생생한 기록이자 늑대가 왜 초원의 최종 지배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흔히 ‘늑대같은 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탐욕성을 빗댄 표현이지만 늑대처럼 지략이 뛰어나고 새끼와 암컷을 보호하며 인내력이 강한 동물이 없다. 책을 덮으며 이제 멸종위기종이 된 늑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코로나도 인간이 대자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일독을 권유한다.

밑줄: (늑대가 지배하는) “올론초원에는 지금껏 한번도 전염병으로 인한 난리가 없었다.”

정성희(국사82-86)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우리가 간과했던 에도시대의 힘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신상목 / 뿌리와이파리

재미있다. 임진왜란 이후 메이지유신까지 계속된 에도 시대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근대화 역량을 축적해갔는지 여러 주제별로 짜임새 있게 설명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웃 나라에 대해 의외로 무지한 면이 많았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한 민족이 번영하려면 구성원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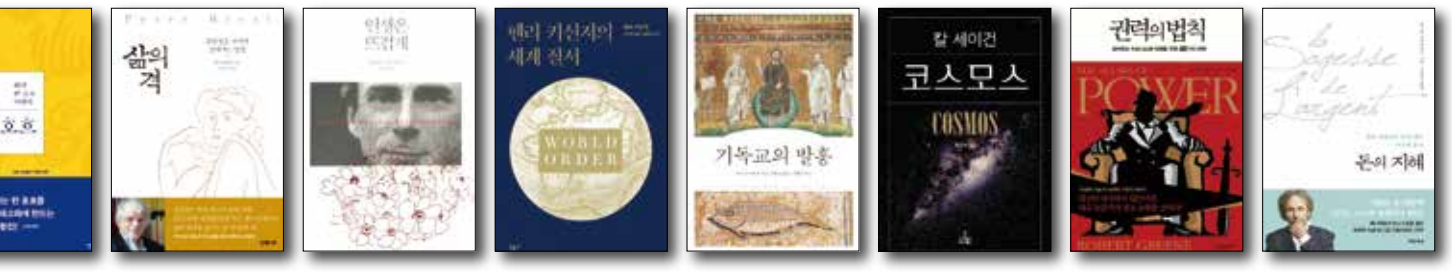
밑줄: “네덜란드 해부학 책을 입수한 일본인 의사 3명이 네덜란드어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매달려 1774년 이를 번역해냈다. 10년 뒤 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선인 의사 남두민은 일본인 의사가 해부 실험에 대

모교 재학생 ‘90년생이 온다’ 많이 읽었다

2020년 1~9월 모교 중앙도서관 대출 순위

대출 순위	서명	저자
1	안과학	김현승 외
2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3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3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5	90년생이 온다	임홍택
5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7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8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9	여행의 이유	김영하
9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역사, 경제…)	채사장

밑줄 그으며 책 읽는 재미”



해 설명하자 ‘갈라서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가르지 않고도 아는 것은 성인들만이 할 수 있으니 미혹되지 말라’고 꾸짖었다.”

오정환(공법83-87) MBC 보도본부 부장

반 고흐 진면목 담은 평전

화가 반 고흐 이전의 판 호흐

스티븐 네이페 등(최준영 옮김) / 민음사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동안, 고흐는 수많은 좌절과 역경을 겪으며 자신의 재능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압박감이 엄청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화가의 꿈을 이뤘다. 눈물겨운 노력과 강인한 의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고흐의 초기시절부터 후기까지 모든 명작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재미도 쏠쏠하다.

추천 구절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1889년 생폴드모졸 요양원에 입원 당시 고흐의 심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동안 고흐가 당한 고초를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밑줄: “핀센트의 기분에도 다른 바람이 불었다. 아를 사람들에 비하면, 생폴드모졸 요양원의 환자들은 정중함과 동정심의 본보기 같았다. ‘그들은 우리가 타인에게 관대해야 타인도 우리를 관대히 대할 거라고 말하는구나. 우리는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한다.’ 화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방해받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그릴 수 있었다. 헤이그에서는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 누에넌에서는 쫓겨났다. 아를에서는 돌을 맞았다.” 허범구(사회83-89) 세계일보 부국장

자신을 속이는 것 또한 삶의 기만

삶의 격: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페터 비에리(문항심 옮김) / 은행나무

삶의 기본 가치도 안 지키고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활개치는, 품격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추천한다.

밑줄: “삶의 기만은 타인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자신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또 사실대로가 아닌 자신을 평가한다.” “아무리 막강한 현실이 덮쳐와도 자신에게 익숙한 자아상에 끈질기게 매달린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것이다.”

강경희(외교84-88) 조선일보 논설위원

숨기지 않는 자서전, 신선하다

인생은 뜨겁게 : 버트런드 러셀 자서전

버트런드 러셀(송은경 옮김) / 사회평론

두툼한 분량이지만 지겹지 않다. 여러 분야에서 또렷한 족적을 남긴 거인의 삶을 슬쩍 엿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감추고 싶었을 성싶은 내밀한 얘기들을 과감히 털어놓는다. 공은 부풀리고 과는 숨기는 게 자서전이라지만 이 책은 예외로 꼽고 싶다.

영국 총리의 손자였으니 태생부터 금수저였는데 위선이나 ‘내로남불’과 거리가 멀었다. 변화무쌍한 인생 궤적만큼이나 교류했던 수많은 동시대 인물들과의 인연도 다채롭다. 책을 다 읽고 나면 그의 삶을 하나의 눈금이 새겨진 잣대로만 재단하는 건 무모하다는 걸 알게 된다. 하긴, 그렇지 않은 생애가 어디 있겠는가.

밑줄: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의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열정들이 마치 거센 바람과도 같이 나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몰고 다니며 깊은 고뇌의 대양 위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돌게 했다.”

임석규(언어84-91)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국제 질서 탄생 이끈 역사적 사실들

헨리 키신저의 세계 질서

헨리 키신저(이현주 옮김) / 민음사

너무 복잡한 시대에 좀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밑줄: “역사는 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강물은 항상 변하고 있다.”

정연욱(공법85-89) 동아일보 논설위원

초기 기독교 정신 오늘과 달랐다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로드니 스타크(손현선 옮김) / 좋은씨앗

대중 의식과 여론의 변화, 이데올로기 변화를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보고 싶은 분들께 권한다. 박해받던 신흥종교가 어떻게 서구 문명의 지배적 종교가 되었는가? 초자연적,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분석했다.

로마제국을 휩쓴 2, 3세기의 역병이 기독교를 발흥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장에서는 21세기 역병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되짚게 한다. 역병에 대처하는 초기 기독교도들의 사랑과 구제 정신, 이웃과 연대 의식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최근 일부 교회의 모습을 대비시킨다.

밑줄: “고전 사회가 이런 재난에 의해 지축이 뒤흔들리고 희망을 잃는 일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지배적 신앙으로 부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성기홍(사회86-90)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우주의 일부임을 다시 생각할 때

코스모스

칼 세이건(홍승수 옮김) / 사이언스북스

우주의 경이로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없이 겸허하게 만드는 책.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 아닌가. 우리가 자연의, 더 나아가 우주의 일부임을 다시금 깨닫자는 차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밑줄: “우리도 코스모스의 일부다. 이것은 결코 시적 수사가 아니다. 인간과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연결돼 있다.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으며 인류의 운명도 코스모스와 깊게 관련돼 있다.” 신예리(영문87-91) JTBC 보도제작국장

사회에서 통할 권력의 교본

권력의 법칙: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지배하는 48가지 통찰

로버트 그린(안진환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사회생활에서 한 번쯤은 부딪혔거나 생각해봐야 할 상황들에 대해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저자의 해석을 제공한다. 해석이나 해법이 때론 후흑학(厚黑學 청나라 말 처세술서)에 해당할 정도인 것도 나름의 재미다.

밑줄: “공짜로 제공되는 것에는 반드시 책략이 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두뇌를 훈련시켜라.”

전경하(독어교육87-91) 서울신문 논설위원

철학의 눈으로 돈 꿰뚫어보기

돈의 지혜: 삶을 관통하는 돈에 대한 사유와 통찰

파스칼 브뤼크네르(이세진 옮김) / 흐름출판

베스트셀러 대열에서 빠지지 않는, ‘돈 버는 법’에 대한 책은 아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지성으로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저자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돈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철학과 문학, 성경, 신화 속에서 펼쳐냈다. ‘돈의 지혜’는 결국 ‘돈을 대하는 인간의 지혜’를 뜻한다는 뻔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인문학적 코드가 흥미롭다.

밑줄: “미국인은 프랑스인과 반대로 부를 과시한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호화저택이 담장도 없이 만인의 시선에 노출돼 있다. 프랑스에서는 그런 저택이 겹겹이 둘러싼 키 큰 나무, 높다란 창살문으로 꼭꼭 감춰져 있는데 말이다. 미국은 성에 대한 금기가 우세하지만, 프랑스는 돈에 대한 금기가 우세하다.”

“1851년에는 사기꾼, 재주꾼, 곡예사, 포주나 다름없는 금융인에게 영성체를 금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옛날식 청교도적 반응일까, 궁핍보다 과잉이 더 무섭다는 직감일까? ‘사람들은 가난을 유감스러워하지만, 잘사는 것은 혐오한다’라고 마키아벨리가 말했다. 무서운 시각이다. 욕망은 지나친 풍요의 우울에 배겨나지 못한다.”

홍지영(불문89-93) SBS 선임기자

올해 재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려 본 책은 인문서와 소설이 강세였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출 순위는 다음과 같다.

대출 순위	서명	저자
11	아몬드	손원평
12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13	채식주의자	한 강
14	검사내전	김 웅
1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16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김영민
16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18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유성호
18	트렌드 코리아 2020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18	피프티 피플	정세랑

“장학금은 나를 믿어준다는 증표, 그 믿음 지키는 사람될 것”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해마다 수능 만점자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지만, 자유전공학부 20학번 송영준 씨만큼 화제가 된 인물은 드물다. 출신 고등학교인 김해외고에 입학해 처음 치른 시험에서 전교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가 3년 후 치른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대역전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 때문에 과외는커녕 학원도 다녀 본 적이 없는 그가 일궈낸 작은 기적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희망(AIC 9기) 남성정밀 대표가 그 감동에 응답해 학부 4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본회 ‘희망특지장학금’을 통해서다. 2006년 박 동문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출연한 1억원을 운용해 매 학기 2명의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남성정밀은 1999년 6월 출범해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았으며, 2019년 기준 400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김해지역 기반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체다. 고향 선후배이기도 한 박희망 동문과 송영준 씨를 지난 9월 23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박 동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희망 동문(왼쪽)과 그의 장학생 송영준 씨가 지난 9월 23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박 동문의 회사 앞 골목에서 포즈를 취했다.

장학생 송영준
사교육 없이 수능 만점 화제
주말엔 과외·학습 코칭 부업

기부자 박희망
어려운 여건서 성장한 사람
크게 성공할 가능성 보고 뽑아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 장학금 수여식도 생략됐습니다. 아쉬움은 없는지.

박희망 : “제 장학생 중 한 명이 지난 8월 후기 학위수여식 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이 온라인으로 대체돼 학위 받는 것도 못 보고, 예전처럼 장학증서도 직접 못 주고, 이대로 ‘빠이빠이’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밥 한번 먹자고 약속을 정했고, 내친김에 다른 장학생들도 초대했죠. 학생들도 저도 정말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장학금 수여식과는 별도로 학기마다 한 번씩 장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해요.”

송영준 : “그 모임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장님과는 세 번째 만남이었죠. 회장님 지인 한 분과 장학생 4명이 함께했습니다. 어른들과의 식사 자리여서 한편으론 불편하지 않을까 긴장했는데 정말 편하게 대해주시고, 참석인원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아서 장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게 배려해주셨어요.”

-두 분은 같은 지역 출신이기도 합니다. 혹시 예전에도 인연이 있었는지, 장학금 지원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희망 : “신문기사를 통해 송 군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장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는데, 송 군은 사전에 제가 면접을 보기도 했죠. 처음 연락했을 땐 전화도 안 받았어요(웃음). 홀어머니 밑에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을 텐데 사교육 없이 수능 만점을 받았다니 무척 대견했죠. 송 군한테서 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를 여읜 송 군처럼 저도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송 군이 장학금을 받긴 하지만 제 손으로 생활비를 벌어 공부하고 있는 점도 낮엔 일하고 밤엔 학교를 다녔던 제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한 사람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 군에게 거는 기대가 커요.”

박 동문은 경남 남해 출신이지만, 김해에서 30년 넘게 회사를 꾸려가고 있으니 고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하는 송영준 씨와 계속한 인터뷰.

“장학금은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증표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치른 배치고사에서 127명 중 126등을 했을 때,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고 공고로 전학해 빨리 취업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격려해주시면서 장학금을 알아봐 주셨어요. 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공부했고요. 평범하진 않은 가정환경에서 사교육 없이 수능 만점을 받은 것이 화제가 돼 희망특지장학금 외에도 여러 기업과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는 건 그 믿음을 업고 가는 거라 생각해요. 저를 신뢰해주시는 분들께 부끄러운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다짐하게 되죠.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성찰과 성장의 기회까지 주신 셈이에요.”

-김해장학재단, 정산장학재단, LH 등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웃음). 나중에 보니 집에 빚이 좀 있더라고요. 등록금과 생활비만 남기고 다른 장학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재단과 기업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양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에게 고루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등교할 일이 별로 없죠? 요즘 대학생활 어떤가요.

“1학기 땐 기숙사에 살면서도 수업은 계속 비대면으로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학생식당을 순회하기도 했고요. 예술계 식당 밥이 맛있더군요(웃음). 기말고사 때 세 과목을 대면으로 시험 쳤는데, 그때 처음 교수님 얼굴을 실물로 뵈었습니다. 화상으로 대화 나누던 동기들과도 처음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하긴 했죠. 2학기 들어서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기숙사 생활에 비해 기본 생활비가 더 들긴 하지만, 더 자유롭고 독립된 공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월요일엔 오후, 화·목·금요일엔 오전 오후에 걸쳐 비대면 수업을 듣고, 토요일과 일요일엔 일을 합니다. 고등학생 3명에게 과외지도를, 분당 소재 입시학원에서 학습 코칭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수요일 하루 쉽니다.”

송 씨의 일상을 듣자, 박 동문이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라고 말했다. 나이 들면 체력을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공부도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거라며 하루 1시간 이상은 운동에 투자하라고 따뜻하게 조언했다.

-사교육 없이 수능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됐는데, 사교육계에 한발 담그고 계시네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게요(웃음). 과외를 받은 적은 없지만, 고등학생 때도 친구들이 공부 관련 질문을 많이 해와서 과외지도 자체는 낯설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인지, 이전까진 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학습 코칭하면서 사교육계의 면면을 전해 들을 땐 신기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스타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 3층 접수실부터 1층 현관까지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특히 그랬죠. 사교육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과외지도하는 학생이 못 풀던 문제를 풀게 될 땐 가르치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수능 만점자로 키워보고 싶어요.”

-1학기 성적 잘 나왔나요? 대학공부를 해본 소감은.

“고등학교 땐 ‘이걸 왜 배우나’ 싶었던 데 비해 대학공부는 쓰임이 눈에 보여서 좋았어요. ‘서울대 수업’이라는 점도 의욕을 북돋웠고요. 지난 학기 성적은 총점 3.96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학점을 공개했더니 고등학교 후배가 제 성적을 알고 있더군요(웃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에서 평균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수강할 때도 어려웠는데 성적도 B+로 비교적 낮게 나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2학기 땐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이번 학기에 기대되는 수업이 있다면.

“‘시민 생활의 법적 이해’란 수업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법학에 관심이 많아서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양서적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로스쿨 교수님한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검사가 되고 싶다는 장래희망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검사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중학교 때까진 막연히 멋있다고 생각했고요. 고등학교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정의구나’ 하는 깨달음에서 검사를 희망하게 됐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고2 때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을 준비하면서 처음 법 공부를 접했습니다. 어려운 만큼 재미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다른 진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다리가 편찮으셔서 쉬고 계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부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타 대학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간호실습 중이라 많이 바빠서 제가 주로 어머니를 챙겨 드리고 있어요.”

-로스쿨에 진학하면 학비가 더 많이 들 텐데.

“학원과 과외 일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일하는 학원의 선생님이 과외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능 만점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과외비를) 더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 공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해서 남들 받는 만큼만 받겠다고 했죠. 대학원 진학할 즈음엔 저도 경력이 붙을 테니까 그땐 더 많이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웃음).”

송 군은 주말에 번 돈으로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어머니 생활비로 매달 120만원을 부친다고 한다.

-수능을 앞두고 새삼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개인사가 회자 되는데 불편하진 않은지.

“처음 저를 대할 땐 불편할 수도 있는 가정환경이에요. 그러나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죠. 그게 되게 특별하고 희귀하고 감춰야 하는 그런 사실은 아니잖아요. 대학 와서 만난 친구들이 ‘어, 얘 아버지 안 계신데…’ 하며 어떻게 저를 대해야 할지 몰라 괜히 미안해하거나 왠지 조심스러워 하거나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원래 배려심이 없는 친구들인지(웃음) 전혀 상관없이 저를 대해줘요. 그게 고맙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해요. ‘내 취미는 탁구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서울대에서 있었던 추억을 꼽는다면.

“고1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탐방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서울대에 와 봤죠. 관정도서관을 올려다보며 ‘와, 여긴 정말 학구열이 불타는 곳이겠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 ‘나도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 생각했었어요. 그땐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먼 미래의 꿈 같았는데, 입학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도서관을 올려다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나경태 기자

동문 서비스1 :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이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 고
	서 울	경 주	지리산	설악산	
객 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 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 고
객 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 원/일)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5,000~90,000	90,000~130,000	95,000~120,000	30,000
8~30일	50,000~85,000	50,000~90,000	80,000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2-571-8100
- 서드에이지 :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055-530-8100)
- 예다함상조 :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1566-6644)

앰배서더 호텔 그룹

구 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10%	15%	5%	02-567-1101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10%	10%	5%	02-838-1101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15% 최대 16인, 식음 이용 불가 행사장 대여에 한함	032-729-1111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앰배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항목	제공특전	비고
웨딩	상시메뉴 5% 할인 , 음/주류 20%할인 - 웨딩카 픽업 서비스	성수기 토요일 12시 제외
연회&가족연	식료 10%할인 (단, 조식 5%)	출장연회 포함
레스토랑	뷔페식당: 식료 15% 할인(단, 12월 10% 할인) 일식당: 식료 10% 할인 - 중식당: 식료 10% 할인 라운지바: 음주류 15% 할인	조식 제외
피트니스	회원권 신규 가입 5% 할인	회원제 운영
스파	르스파 10% 할인	
객실	디럭스룸 150,000원 (조식 1인당 25,000원 별도) 디럭스룸 이외 객실 타입은 별도 문의 요망	실내 수영장 무료

※ VAT 포함가, 객실 특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후 갱신 예정),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2-532-5000

라마다 군산 호텔

(단위 : 원)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0,000	80,000	100,000	110,000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2,000	87,000	110,000	120,000
디럭스패밀리트윈/온돌	264,000	94,000	120,000	130,000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0년:1/23~26,4/29~5/4,7/17~8/15,9/29~10/3,10/8~10,12/24~31 2021년:1/1~2,2/10~13,2/27~28,7/16~8/21,9/17~21,10/8~9,12/24~25			

※ 세금, 봉사료 포함가,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63-441-8000

하늘계곡연수펜션

(단위 : %)

구 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 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 객 실 : 성·비수기 구분 없음 - 세미나 :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43-653-2013, www.skyp.co.kr

음식점 등

● **카페 모리나리 (이태리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단체 제외)
※ 예약 및 문의 : 02-771-1808 (서울 중구 소공로 29 중석빌딩)
● **램스에비뉴 (양고기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음료 제외)
※ 예약 및 문의 : 02-303-898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11)
● **필경재(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동문 서비스2 :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 (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5491,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제천 명지병원 인천사랑병원	031-810-6383 043-640-8450/8451 032-457-2800	건강검진 20~30% 우대 비급여진료 10% 우대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5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777	장례식장 10% 우대, 일반진료비 10%
제일병원	02-2000-7200(내선2번), 7401~3	
차움건진센터 삼성분원	1800-7750(내선1번)	일반검진 제외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동문 서비스3 : 경조 서비스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 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5,000원	30,000원	80,000원 (전 지역 동일)	100,000원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0,000원	38,000원		
수도권	38,000원	42,000원		
경기외곽	42,000원	45,000원		
지방	48,000원	48,000원		
제주도	58,000원	58,000원		

1 신 청 _ 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 전화 02-702-2233

2 입 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3 배 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모바일카드
홈페이지 www.snua.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회원가입 필요)
* 모바일 회원우대증을 이용하시면 카드 제작비 및 발송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실물카드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02-702-2233)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11월 행사 안내

총동창회는 동문 간 친목과 공부·취미 모임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문님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소독과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사가 갑자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02-702-2233, 02-879-8204

제1회 국토문화기행

- 일시 : 11월 5일(목)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 집합장소 : 압구정교회 앞 (3호선 압구정역 1번 출구 → 뒤쪽 방향 30m 직진 → 오른쪽길 70m 이동)
- 답사지역 : 화양구곡(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 안내 및 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사범대 74입, 전 대한지리학회장·한국지형학회장)
- 참석인원 : 20명(선착순)
- 준비물 :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 물 등
- 신청기간 : 10월 27일(화)까지
- 참가비 : 5만원

11월 조찬포럼
(SNUA이목회 : 두 번째 목요일 개최)

- 일시 : 11월 12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 볼룸 (고속터미널 뒤)
- 강사 : 김난도 모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 강의주제 : 2021년 소비자 트렌드
- 참가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증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경우, 선착순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참석 못한 동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www.youtube.com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검색 → 실시간 스트리밍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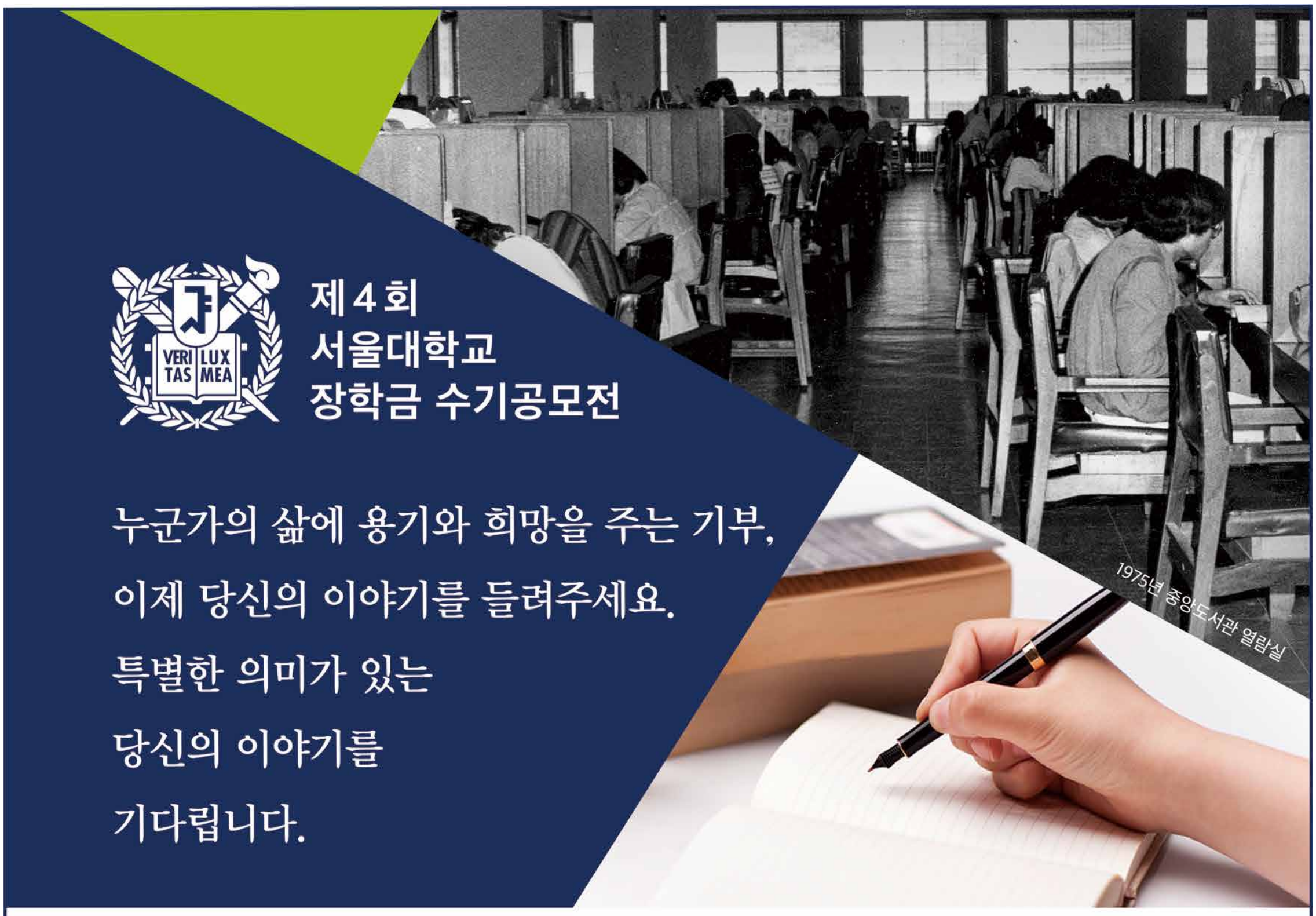
동문 나눔 골프대회

- 일시 : 11월 15일(일) 오후 12시 30분 동시 티오프
- 장소 : 코리아CC, 골드CC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 경기 진행 방법
- 경기구분(남·여 혼성팀 가능)
1) 대표팀 : 단체- 4인 1팀 구성하며, 단과대학 및 지부별 2팀 이상 출전 가능 *4인이 안 될 경우 3인을 1팀으로 구성하여 출전할 수 있음. 개인-개인별로 출전(단체전 출전선수는 모두 개인전도 출전한 것으로 함)
2) 친선팀 : 개인별로 출전 가능
- 시상 대상별 순위결정 방법
1) 대표팀 : 단체-사전 등록된 팀별(4명) 상위 3인의 성적 스트로크 경기성적 합산으로 순위 결정. 개인 - 개인별 스트로크 경기성적 순위 결정
2) 친선팀 : 개인별 신페리오 방식 성적으로 순위 결정
- 신청 방법: 11월 5일(목)까지(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www.snua.or.kr)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팩스 02-703-0755,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참가비 : 1인당 30만원(그린피·카트료·오찬·만찬 포함, 캐디피·그늘집 팀별부담)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예금주:서울대총동창회)
*참가비는 골프장 데스크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11월 6일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11월 수요특강
(SNUA사수회 : 네 번째 수요일 개최)

- 일시 : 11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 홀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 5호선 8번 출구)
- 강사 : 박승준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인문대 74입, '한국과 중국 100년' 저자)
- 참가비 :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 및 강사 저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경우, 선착순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참석 못한 동문들을 위해 추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www.youtube.com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검색)

※ 자세한 행사 안내 및 신청방법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

누군가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기부,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공모주제

장학금과 관련된 자유 주제

공모자격

서울대학교 구성원(학생, 동문, 교직원, 기부자 등)
※ 단, 서울대학교발전기금 기부자 및 장학금 수혜자에 한정하지 않음.

공모분야

학생부문, 일반부문(서울대 동문, 기부자, 교직원 등)

작성방법

한글(혹은 MS word) 글자크기 12포인트로 1페이지 이상 작성
(용지는 한글 A4기본용지로 작성하여, 줄 간격 160%)
※ 단, 원고는 한글 작성원고만 지원 가능함.

공모일정

- 접수기간: 2020.12.07.(월) 10:00 ~ 2020.12.18.(금) 17:00
- 접수방법: 접수기간에 온라인 이메일 접수(snuf@snu.ac.kr)로만 진행(마감 엄수)
- 수상자발표: 2021.02.05. 금. (예정), 재단홈페이지 및 수상자 개별연락예정

시상내용

최우수상	1편	상금	**70만원**
우수상	2편	상금	각 **30만원**
장려상	4편	상금	각 **20만원**

(상금은 제세공과금 제외 후, 지급함)

참가자 전원에게 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해 드립니다.

CU모바일상품권 1만원권

- 지원서와 원고작성요건을 갖춰서 낸 지원자에 한해 2021.01월(예정)에 문자로 발송
- 지원서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홈페이지 www.snu.or.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원고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기부 진작을 위한 사항으로 활용함.
※ 기 수상자 '장학금공모전 1~3회 수상자' 는 지원할 수 없음.

제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이 궁금하다면?

주관: 대학신문,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주최: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30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설립 30주년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공식모금기관입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기획팀(02-871-1621, 1624)

광고심의필 : 2020-1517-001904

정조 20년
영조 51년
숙종 45년
현종 13년
명종 22년

왕의 몸이 예전같지 않을 때
어의는 경옥고를 처방했죠
육체피로부터 갱년기, 허약체질까지-

내 몸이 예전같지 않을 때
광동 경옥고

귀한 분만 드시는...
광동 경옥고

명약이니까
약국에서!

광동제약(주)

[효능효과 : 자양강장 · 육체피로 · 허약체질 · 갱년기 · 병중병후 · 권태]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Kwangdong
광동제약

의대동창회

김건상·이승규·정진엽 동문 함춘대상

지난 9월 15일 열린 함춘대상 시상식에서 임수흠 회장과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임 회장, 김건상·이승규·정진엽 수상자 부부.

상금에 사재 얹어 동창회 기부

의과대학동창회(회장 임수흠)가 지난 9월 15일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1회 함춘대상 시상식 및 2020년도 동기회장·지회장·상임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임수흠(73-79) 회장을 비롯해 홍정용(69-75) 명예회장, 심영보(55-61) 원로 동문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건상(63-69) 중앙의대 영상의학교실 명예교수, 이승규(67-73)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외과 석좌교수, 정진엽(73-8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춘대상을 수상했다. 함춘대상은 매년 3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거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해 시상을 미루다 이날 약식으로 진행됐다.

김건상 동문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등 의학 관련 단체의 리더로 활동했으며 영상의학회에 외국 의학자의 국내 수련 제도를 도입, 국제 교류와 국위 선양에 앞장섰다.

이승규 동문은 1994년 국내 최초로 생체간이식을 성공시켰고 1999년엔 세계 최초로 변형우엽간이식술을 개발해 성인 생체 간이식의 세계적 보급에 기여했다.

정진엽 동문은 뇌성마비를 비롯한 신경근육성 질환의 분석 및 치료에 3차원 동작 분석을 도입했으며 국내외 학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소아정형외과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수상 동문 3명은 상금 1,000만원을 동창회 발전기금 등으로 쾌척했다. 김 동문은 의대동창회와 중앙의대에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 동문은 상금에 사비를 얹어 총 2,000만원을 의대동창회에 기부했다. 정 동문도 상금 전액을 후배 의학도를 위한 연구비로 출연했다.

임수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4월 함춘회관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문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역대 회장들과 선배들의 도움 덕분에 동창회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무보고에선 동창회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연회비와 이사찬조금 납부 제고, 행사참가비 면제 대상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전임 임원진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동창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타의 모범이 된 동문과 동기회, 지회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나경태 기자

수의대동창회

윤상래·강부현·정현규·신창섭 동문 수의대인상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권동일)가 지난 9월 27일 관악캠퍼스 스코필드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9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10명 안팎의 최소 인원만 참석하되 유튜브 생방송을 병행한 이날 행사에서 윤상래(62-66)·강부현(72-76)·정현규(79-84)·신창섭(82-89) 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상래

강부현

정현규

신창섭

윤상래 동문은 녹십자 백신 개발 생산공장장을 역임한 후 1972년 미국에 정착했다. 현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미주 총동창회장을 맡아 동문 화합을 다지는 데에도 공헌했다. 시상식에서는 황대우(62-71) 동문이 대리 수상했다.

강부현 동문은 미국 UC DAVIS에서 비교병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성병리전문가로서 국내 안전성 평가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했다. 켐온 의학연구소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정현규 동문은 37년간 양돈 수의사로 활동하면서 도드람양돈농협의 창립과 발전에 기여했다. 2003년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 설립을 이끈 그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 자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신창섭 동문은 30여 년간 동물약품 업계에 몸담아 가축전염병 방역정책 개발과 동물약사심의위원 활동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했다. 2014년부턴 버박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물약품 품질향상에 공헌했다.

GLP동창회

이종묵 동문 메달리스트

글로벌리더십과정(GLP)동창회(회장 장세철)가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안성 마에스트로CC에서 월례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4명씩 5개 조를 구성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이종묵(9기) 동문이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우승은 이강옥(30기) 동문이, 롱기스트와 니어리스트는 정동헌(31기), 박혜경(15기)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지난 7월 골프대회 여성부 우승 동문인 유형숙(15기) 캠프더블루 대표가 30만원을 협찬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8일 열린 GLP동창회 골프대회에서 참가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편 GLP동창회는 동문들끼리 서로 돕자는 취지로 'GLP 네트워크 비즈니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추석 때 동문 회원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 중 추석 선물로 유용하면서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상품을 추천받았다. 정유근(7기) 농업회사법인 신지원 대표가 다이어트 건강 스낵을, 고희권(19기) 티엔에스 개발 회장과 최익봉(34기) ACOBIO 대표가 마스크를, 박홍순(27기) GLP&P 회장이 바이주와 퓨전 와인을, 조영철(39기) 농협 홍삼 대표가 홍삼 제품을 제안했다.

농생대동창회

디지털 경제 시대, 플랫폼 모델로 대비하라

홍기영 동문 화상 강연

지난 9월 15일 홍기영 동문의 화상 강연 모습.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서병륜)가 지난 9월 15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홍기영(국제경제81-88) 매일경제 월간 국장의 화상 강연을 진행했다. '플랫폼 승자의 법칙'의 저자인 홍기영 동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이란 말 그대로 '정류장', 목적지로 가기 전 '사람이 모이는 곳'을 뜻하는데, 비즈니스 용어로서 플랫폼모델은 구독경제 및 공유경제를 망라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의미한다. 해외에선 구글·아마존·넷플릭스, 국내에선 카카오·배달의 민족 등이 성공 사례로 꼽힌다.

홍 동문은 농생대 아그로푸드플랫폼(이하 AFP) 사업단의 사업을 분석해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 활용 △개방적 협업 강화 △시장분석 △민관 사업자금 조달 원활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 AFP 사업 성공의 조건을 정리하기도 했다. AFP는 2019년 5월 서병륜(농공69-73) 회장 취임 직후 출범한 동문 협력의 장으로, 농식품 분야의 유망 과제를 찾아내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AIC동창회

본래 취지 살려 재개설 건의…40기 27명 입학

지난 9월 17일 모교 행정대학원 5층 컨벤션홀에서 AIC 최고위과정 40기 입학식이 열렸다.

지난 9월 17일 모교 행정대학원 5층 컨벤션홀에서 창의융합최고위과정(Advanced program for Innovative Convergence) 40기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입학생 27명과 함께 임도빈(사회교육79-83) 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진 6명과 박규홍(11기) 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AIC과정은 1995년 10월 '정보통신정책과정'으로 최초 개설돼 1997년 10월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Advanced program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 Broadcasting Policy)'으로 이름을 바꿔 2014년까지 이어오다 '창의혁신리더십과정'으로 재차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2016년까지 1,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나 39기를 끝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2017년부턴 '지방의정리더십과정(Advanced program for Innovative Council)'으로 변경돼 영문 약어는 AIC로 동일했으나, 본래 취지와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

그러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박 회장을 포함한 동문들이 본래 취지에 걸맞은 AIC과정의 필요성을 학교 측에 꾸준히 제기했고, 학교도 이에 공감하면서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과 지방의정리더십과정을 통합해 이번 학기부터 창의융합최고위과정으로 재개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창회 명칭도 창의융합최고위과정동창회로 거듭나게 됐다.

AIC과정 출신 인사로 민원기(16기) 한국 뉴욕주립대총장, 장석영(20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후곤(26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성훈(2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은희(24기) 대구시교육감 등이 있다.

AIP동창회

김형진 신임 회장 취임

김형진(21기 본회 상임부회장·사진) 세종텔레콤 회장이 지난 8월 19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제16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동창회 회장에 추대됐다. 당초 9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총회가 취소되면서 추대와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김 신임 회장은 경기대 경영학과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모교 AIP 특별과정을 포함해 26개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이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세계미래포럼 고문 등을 겸임하고 있다. 2008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015년 국민훈장 동백장, 2017년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을 받았다.

해외지부 회장 인터뷰

회원 100여 명, 한국-베트남 교류 앞장

이영기 베트남 하노이지부 회장

지난 9월 22일 한국을 방문 중인 이영기(농공73-78 캠퍼스-K 하노이 회장) 하노이지부 회장을 과천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 회장은 2019년 초부터 배종하(경제75-79 전 국제식량농업기구 베트남 국가사무소장) 전임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하노이지부를 이끌고 있다.

이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베트남 역시 동창회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현재는 동문 명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부 소식을 전했다.

하노이지부에는 약 100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 등으로 베트남에 정착해 사는 회원이 대다수다. 삼성과 포스코 등 대기업이나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동문까지 찾으면 회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노이지부의 색다른 점은 회원 중 20명 정도가 베트남 현지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연말 모임엔 베트남 현지 동문들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참석해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말도 유창하고요. 현지 한국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베트남 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현지 리더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고요. 베트남 국민경제대(NEU) 쩐토닷 전 총장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하노이지부가 단순 친목 단체에서 벗어나 한국과 베트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정체성을 새롭게 정비한 정관에 넣었고, 조직을 개편했다. 새 정관에는 모교 특별과정 출신들도 준회원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해외지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체제를 정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올스톱 된 상태다. 회장단이라도 자주 모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대중교통,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차단해 작은 모임도 불가능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전 중요한 게 그 모임에 동질감, 소속감을 느껴야 합니다. 술 한 잔이라도 하면서 자주 모여야 싹트는 감정이죠. 그런 유기체가 되기 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담만 갖게 됩니다. 한창 으쌰으쌰 해야 할 때 이런 사태가 벌어져 너무 아쉽죠."

하노이에 K-캠퍼스 공유오피스 운영
베트남 진출 원하는 한국인 컨설팅

이 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코로나로 쉰 기간이 있으니 1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능 있고 하실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 회장은 총동창회가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각 나라의 동창회 임원과 글로벌 화상 모임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인생 2모작을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다. 5년 전 코이카 자문관으로 베트남에 와 글로벌CEO 아카데미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베트남과 인연을 맺었다. 3년간 주임교수로 만난 한국 및 베트남 리더들이 150명이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하노이에서 공유오피스인 캠퍼스-K를 운영하며 베트남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인들을 컨설팅 중이다. 외국인 투자법인 팜코에서 만든 캠퍼스-K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비즈니스 베이스 캠프이자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뉴욕주립대 스토니 브룩에서 기술경영 석사 학위, 서울과학종합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양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GE 아태지역 구매책임자 등을 거치며 경영지도사로 40여 년간 기업 실무 중심 경영지원 및 교육에 힘써 왔다. 김남주 기자

전사한 학도병, 4·19 희생 동문 조사 재개키로

오세정 총장 개교기념식서 밝혀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 성기학(왼쪽)·김기남 동문.

모교가 6·25전쟁 학도병 전사자와 4·19혁명 희생자 동문 중 과거에 조사를 통해 명예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누락된 동문을 위한 신고와 조사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 중 별세했거나 아직 학적이 회복되지 않은 동문을 위한 명예졸업장 수여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제74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오세정 총장이 기념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오 총장은 6·25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에 모교의 지난 74년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동문들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부당징계와 강제징집을 받은 동문에게도 "강압적인 시대의 일이었지만 대학이 자율성을 지켜가면서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위로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개교기념식에서 모교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된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과 김기남(전자공학77-8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했다.

성기학 동문은 모교 졸업 후 1974년 27세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기업 영원무역을 설립했다. 1997년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처음 들여왔고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다.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2008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국제섬유생산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성공의 결실은 아낌없이 나눴다. 모교에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30억원, 아시아연구소 건립기금 30억원, 경영대학술연구비 1억여 원을 기부하고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북한·중국·베트남 등 국내외에 약 700억원 규모의 물품을 기부했고 최근 코로나19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원을 기탁했다. 상대동창회장을 지냈으며 2017년 본회 관악대상을 받았다.

김기남 동문은 30여 년간 반도체 업계에 몸담으며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크게 도약시킨 주인공이다. 전자공학 전공으로 모교에서 학사학위,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1년 삼성전자 반도체제조기술팀에 입사했다. 반도체연구소장을 거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사장, DS부문장 겸 사장을 역임하며 1메가D램부터 4기가 D램까지 반도체 기술의 세계 최초 개발을 이끌었다. 2003년 '삼성 펠로우'에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 및 미국공학한림원 회원이자 미국전기전자학회 석학회원이다. 2017년 세계 최대 반도체 연구소 아이멕이 수여하는 평생혁신상을 받았다. 지난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이희범 본회 회장은 축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나라 섬유업계 대부인 성기학 동문과 반도체업계 대부인 김기남 동문이 올림픽 성공의 주역이었다"고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수진 기자

제10회 사회봉사상에 이진학 명예교수

모교는 제10회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이진학(의학65-72·사진) 세종여주병원 안과 의사 겸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를 선정했다. 국내 무의촌과 개발도상국 등 국내외에서 40년여간 의료봉사를 펼친 공로다. 지난 9월 8일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양두석홀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이 명예교수는 2011년 정년퇴임하기까지 모교 의대에서 각막·백내장 질환 명의로 명성이 높았다. 인공각막을 연구개발하기도 했다. 한편 40년 가까이 무의촌 무료 개안수술을 시작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의 개발도상국을 찾아 현지인들의 실명 구제에 힘썼다. 환자들의 수술 이후 진료비와 약 비용 등 사후 지원까지 살피고, 개발도상국 안과 의사들을 모교 병원 연수의사로 초청해 의학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기도 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한 이 명예교수는 현재 세종여주병원 안과에서 인술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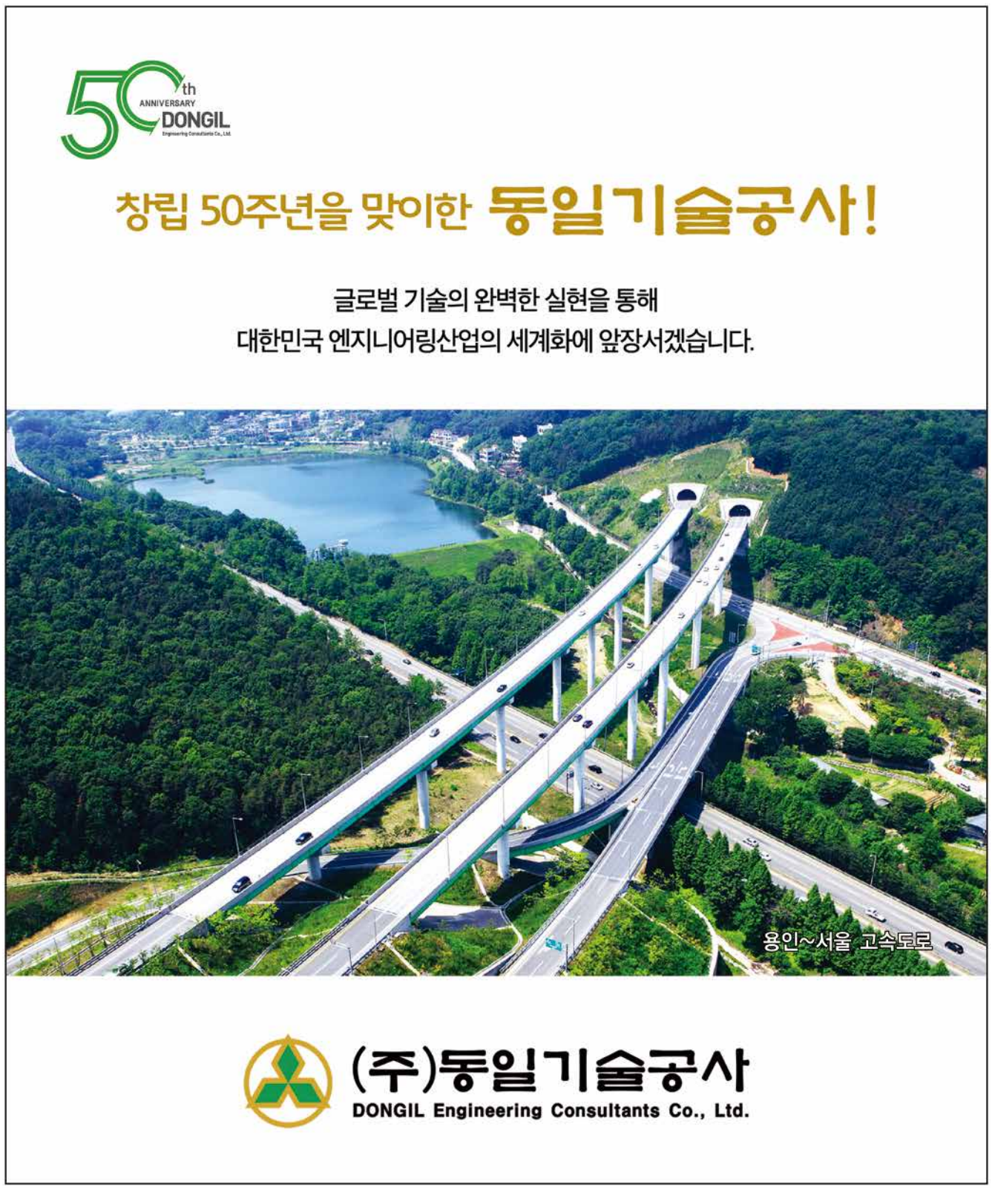
모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 학내 구성원과 동문 등에게 2011년부터 사회봉사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모교 THE 세계대학평가 60위

모교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평가에서 작년보다 4단계 오른 60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2일 THE가 발표한 2021 세계대학 순위에서 모교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총점 69.7점을 받았다. 항목별 점수는 △교육여건 72.4점 △연구실적 73.8점 △논문 피인용도 68.8점 △산학협력 수익 97.8점 △국제화 37.4점이다. 교육여건 점수는 세계 30위, 산학협력 수익의 점수는 세계 39위급이다. 국제화 점수는 2016년 30.9점에서 한 번도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국내 대학 2위는 세계 96위 카이스트, 3위는 세계 101위 성균관대였다. 전체 순위는 작년에 이어 옥스퍼드대가 1위를 지켰고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캘리포니아공과대, MIT가 뒤를 이었다. 중국 칭화대(20위), 베이징대(23위), 싱가포르국립대(25위), 난양공대(47위) 등이 상위에 포진한 가운데 100위권 안에 중화권 대학이 지난해의 두 배 가량 늘었다.



모교 단신

모교 AI전문가 릴레이 강연

AI연구원(원장 장병탁)은 유튜브 '서울대학교AI연구원' 채널에서 12월까지 모교 AI전문가 6명의 온라인 강연 '2020 가을 AI콜로퀴움'을 진행한다. 지난 9월 17일 김건희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차례 강연을 열었다. 11월 5일에는 박상철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월 19일에는 이인아 모교 뇌인지과학과 교수의 강연을 오후 5시에 실시간 중계한다.

지난해 SCI급 논문 2,193건 발표

최근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가 발표한 2019년 전임교원 연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모교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3,058건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했다. 국내학술지는 806건, 국제학술지는 2,252건이었으며, SCI/SCOPUS급 국제학술지에 등재한 논문 건수는 2,193건이었다. 논문 실적 2위는 연세대(2,155건), 3위는 성균관대(2,012건)로 나타났다.

시흥시에 치과병원 설립 협약

모교와 모교 치과병원(병원장 구 영)은 지난 9월 28일 시흥시와 협약을 맺고 시흥캠퍼스 인근에 약 200체어 규모의 서울대치과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가칭)'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흥캠에서는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병원 2025년 암 중입자치료기 도입

모교 병원(병원장 김연수)은 2025년부터 암 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갖춘 '서울대병원 기장암센터(가칭)'를 부산 기장군에 운영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히고 도시바-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과 암 치료용 중입자가속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암세포에 조사하는 치료기기로 종양 살상 능력이 높아 '암 치료의 명사수'로 불린다. 장비당 1,000억원을 호가하며 현재 전 세계 12개 센터에서 활용 중이다.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개소

모교 원자핵공학과는 지난 9월 16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소장 황용석) 개소식을 열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업계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원자력 융복합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원자력 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취지다. 원자핵공학과 주도로 1년여간 개소를 준비해왔다.

음대 제작 음악영화 해외 선전

음악대학(학장 민은기)의 현대음악 창작 플랫폼 '스튜디오2021'에서 제작한 음악영화 '고다 (Simmering)'가 월드 필름 카니발 싱가포르 등 5곳의 세계 뮤직비디오 및 단편영화제에서 연이어 수상했다. 재학생 황재인(작곡17입) 씨가 작곡하고 국악과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울가야금앙상블이 연주, 출연했다. 음대 교수진도 참여했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최종경쟁률 5.68 대 1
성악과 30 대 1 최고, 지역균형 1개 학과 미달

지난 9월 22~25일까지 진행한 모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경쟁률이 평균 5.68 대 1로 나타났다.

모교 입학본부가 발표한 수시모집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447명을 선발하는 모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 1만 3,903명이 지원했다. 경쟁률 5.68 대 1로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 6.86 대 1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전형별 경쟁률은 지역균형선발전형 3.09 대 1이었고, 일반전형은 6.85 대 1로 전년도 경쟁률(8.42 대 1)보다 크게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성취가 어려웠던 탓으로 풀이된다.

일반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음악대학 성악과였다. 24명 모집에 735명이 지원해 30.6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디자인과의 경쟁률(18.50 대 1, 2명 모집 37명 지원)이 가장 높았다. 작곡과 이론전공 지역균형선발전형은 2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해 유일하게 미달했다.

일반전형 기준으로 단과대학별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인문대학 철학과 11.33 대 1(12명 모집 136명 지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14.80 대 1(10명 모집 148명 지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6.47 대 1(32명 모집 207명 지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8.69 대 1(13명 모집 113명 지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9.56 대 1(16명 모집 153명 지원), 미술대학 디자인과 23.83 대 1(6명 모집 143명 지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3.80대 1(10명 모집 138명 지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11.71 대 1(7명 모집 82명 지원)이었다.

또 간호대가 4.27 대 1, 경영대 5.52 대 1, 수의예과 6.36 대 1, 의예과 9.21 대 1, 자유전공학부 6.24 대 1, 치의학과 7.41 대 1을 기록했다. 한때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 중 원자핵공학과는 4.67 대 1, 조선해양공학과는 4.04 대 1이었다.

총 30억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모교는 지난 9월 16일 총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에 납부한 학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모교는 지난 7월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총 6차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협의 끝에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방법을 결정했다.

총 20억원 규모의 긴급학업장려금은 지난 1학기에 등록한 학부 재학생들이 수혜 대상이다. 개인별 1학기 등록금 본인부담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실기·실습 수업이 많아 학업에 어려움이 컸던 음대와 미대 학생은 지급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타 단과대 학생보다 최대 10%p 더 많은 액수가 예상된다. 등록금 전액면제자와 휴학생 및 자퇴·제적생은 제외된다.

긴급구호장학금은 총 10억원 규모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이다. 학부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일괄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원생에게는 추후 신청을 받아 선별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박수진 기자

하나제약 조경일 회장·이윤하 사장 15억원 기부

하나제약 조경일(약학64-68) 회장과 이윤하(제약77-85) 사장이 지난 9월 7일 모교 약대에 '미래인재하나22장학금' 15억원을 쾌척했다. 이로써 하나제약은 모교에 장학금과 시설확충기금 등으로 총 38억원을 기부했다.

하나제약은 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최근 동남아 6개국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마취제 신약 '레미마졸람' 등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조경일 동문은 "급변하는 코로나 시대에 모교가 국가 발전과 세계 인류 건강에 공헌하는 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조경일

이윤하

김용구

9월 21일에는 김용구(정치56-61) 모교 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모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김 동문은 국내 보기 드문 토종 국제정치학자로 유럽 중심 외교사와 강대국 중심의 국제관계사를 비판하며 주체적으로 구한말 외교 이론과 국제관계 이론을 연구해왔다.

휴먼스 오브 스누 • 12

요즘 서울대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모교 재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해 기록하는 휴먼스 오브 스누 프로젝트가 동창신문에 인터뷰를 제공합니다. 이들이 만나서 묻고 듣는 소소한 이야기 속에 후배 재학생들의 일상이 보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페이스북(@humansofSNU)과 인스타그램(@humansofsnu_official)에서 다른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새내기이신데, 비대면 강의들이 어땠나요?

"(사회대생) 전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사회대생)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다른 학교보다 외국인과 한국인 가름 없이 진짜 공평하게…." (일동 웃음)

"(공대생) 웬만하면 한국인이 많은 수업은 안 들어가요."

-어떤 수업을 들었나요?

"(공대생) 물리학, 화학, 미적분학의 첫걸음, 독일어와 전공수업 하나 들었어요. 대학 글쓰기도요."

-잘했을 것 같은데요.

"(공대생) 외국인 반이 있으니까 편해요(일동 웃음). 녹음된 강의는 한국어 강의면 10초 듣고 5분 번역하고, 1시간 강의를 4시간 동안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익숙해졌어요. 이제 대면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습했으니까."

"(사회대생) 저는 사회계열이라 책 읽는 게 많아서 힘들었어요. 리딩 양 많기로 유명한 강의를 들어버려서 망했어요. 날아갔습니다, 이번 제 학점."

공과대학(왼쪽)·사회과학대학(오른쪽) 재학생

"음악은 코로나 시국의 희망 같은 것"

-코로나 시국에서 음악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연 예술이 멈췄다고 할 때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예술의전당도 닫았다가 요즘 교향악 축제를 다시 오픈했는데, 다시 무대에서 생음악이 나오는 것만으로 '시국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구나'라고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언제나 음악은 메시지를 주는 면이 있고, 그래야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메시지 위에도 뭔가 얹혀서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베를린 필하모닉이 '디지털 필하모닉'이라고 원래도 온라인 콘서트를 운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과거 연주만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지휘자가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멈추고 있구나'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요즘엔 다시 현악기로 띄엄띄엄 앉더라도 곡을 연주해서 무관중으로라도 올리고 하니까, 그래도 '이 시국 안에서 뭔가 헤쳐나가려고 다시 시도하고 있구나'가 느껴져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재학생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 회원들

TEL 032-678-3121 www.samyangvalve.com
SAMYANG VALVE
삼양발브종합메이커

일상을 지키는 습관
= 30초 손씻기

극복하자
대한민국!!

건강한 물
삼양발브와 함께합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
일상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손씻기

마스크는
최고의 약
마스크
필수 착용!!
입가리고
기침하기
일상속
거리두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돌려받기 위해
손씻기
면역력 UP
코로나블루 극복하기

CHOI'S MEAT
초이스미트
"Choi's Meat"(崔家正肉)이야기
30년 전,
마장동에서 최씨 성(崔家)을 걸고
올바르게 고기(正肉)를 배우던 청년에서
고기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새로운 터전에서 더 큰 꿈을
꾸고자 합니다.
안전관리인증 HACCP
축산물도소매
할인판매문의
신/사/옥/신/축/이/전
www.choismeat.co.kr
010-5416-1060(최영일 동문) 주소: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553 Tel. 2281-2797

BIO TECHNOLOGY boditech
COVID-19
We provide a total solution of COVID-19 diagnostics that can be used in any environment
Accurate Fast Simple
AFIAS-6
AFIAS
ichroma COVID-19 Ag
iCHROMA II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진단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용 체외진단 전문 글로벌 기업
- 바디텍메드(주)
www.boditech.co.kr
43, Geodudanji 1-gil, Dongnae-myeon, Chuncheon-si, Gang-won-do, Korea
Tel: +82-33-243-1400 Fax: +82-33-243-9373
Boditech Med Inc.

UNTACT 시대, 글로벌 예술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예술대학교 컬처허브(CULTUREHUB)

Changing Tides 2016, 2020 | 서울예술대학교-UC San Diego 협업 멀티미디어 융합 퍼포먼스

서울예술대학교는 <우리 민족 예술혼의 현재화·세계화>라는 창학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10년 전부터 뉴욕의 La MaMa E.T.C.와 함께 뉴욕·LA·이탈리아·인도네시아 등에 컬처허브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로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연결하여 뉴-폼 아트 (New-Form Arts) 창작을 선도하는 등 언택트(Untact) 시대의 예술교육과 예술창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동문 **서울예술대학교 이사장** 이종재 · 총장 이남식 · 부총장 이강우 · 교무처장 한수연 외 교원 7명 |

"기부자님의 소중한 나눔을 서울예술대학교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KEB하나은행 338-910020-90304 (예금주 : 서울예술대학교) · 문의 | 인재발굴원 031-412-7187~8

서울예술대학교
SEOUL INSTITUTE OF THE ARTS

POONGSAN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TEL : 02)3406-5114 FAX : 02)3406-5400

첨단 소재산업이 나아갈 길

누가 앞서갈까?

POONGSAN

첨단 반도체 속에 풍산이 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주택에도
풍산의 기술력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 해 온 풍산
이제, 첨단 소재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앞장섭니다.

For health that lasts a lifetime

예방백신 및 면역항암제 개발·공급 전문기업

㈜유바이오로직스

eubiologics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유비콜® / 유비콜-플러스®**
-경구용 콜레라백신 WHO-PQ 승인(2015.12), 유니세프 공급
-국제방역용 콜레라백신의 80% 담당
-Ending Cholera 2030 참여

➢ **EuCRM197® → EuVCT™ Platform technology**
-접합단백질(천연형, 유전자재조합), 세균백신 면역증강

➢ **Eu-EcML® → EuIMT™ Platform technology**
-Monophosphoryl Lipid A, TLR4 agonist, 면역증강제

➢ **바이오의약 CRMO서비스**
-Contract R&D and Manufacturing Service
-Cell banking, Process development/optimization
-Test method validation, Process validation
-동물세포 및 미생물기반 One-stop 수탁제조 서비스 제공

➢ **Vaccine Pipeline**
-TCV(장티푸스 접합백신) : 임상1상(2018), 3상(2019~2021)
-PCV(폐렴구균 접합백신) : 임상1상(2019~2020), 3상(2022~)
-MCV(수막구균 접합백신) : 임상1상(2020~)
-EuIMT™ Platform을 이용 HPV, RSV, HZV, COVID-19 백신개발

[본사]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성도빌딩 8층 (TEL. 02-572-6675) **[공장(V Plant)/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무동길 125 **E-mail :** eubio@eubiologics.com **Home page :** www.eubiologics.com eubiologics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 잘 먹고 잘 자게 해줬을 뿐”

서울 영등포 CM병원 대표
이윤경 동문

아들 이상훈 동문 3대 병원장
부부·딸·사위·손녀까지 서울대

CM병원 대표 이윤경 동문 가족. 큰딸과 막내아들, 사위 두 명이 모교를 졸업했고, 둘째손녀가 모교 대학원 기록학과에 재학 중이다. 왼쪽 첫째 작은사위, 둘째 작은딸, 여섯째 이도영 CM병원 이사장, 일곱째 뒤 이상훈 병원장, 여덟째 이 대표, 아홉째 둘째손녀, 열째 큰딸, 오른쪽 끝 맏사위.

이윤경(간호65-69) CM병원 대표는 졸업하고 51년이 흘렀지만, 모교의 개교기념일을 기억한다. 서울대인의 자부심에 더해 남편 이도영(의학63-69) CM병원 이사장과 첫 데이트를 했던 날이기 때문. 1965년 연건캠퍼스 연극반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1969년 나란히 모교를 졸업했고, 그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국내 일반외과 의사 1세대인 고 이범순 박사, 관절·척추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도영 이사장에 이어 막내아들 이상훈(의학95-99) 동문이 3대째 병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동문 가족이 힘을 합쳐 병원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지난 10월 8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CM병원 회의실에서 이윤경 동문을 만났다.

“슬하에 2녀 1남을 두었습니다. 모교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큰딸이 국제회의 한영통역사로, 이화여대에서 관현악을 전공한 둘째 딸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사위 둘은 모두 서울대 동문이죠. 큰 사위가 지리학과를 나와 인하대 교수로, 둘째 사위가 의학을 전공하고 건국대병원 기획실장으로 있습니다. 둘째손녀는 모교 대학원 기록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우리 가족은 만나면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공 분야뿐 아니라 역사 종교 음악 미술 등 다방면의 책을 많이 읽어서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게 취미죠.”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은 이 동문이 꼽는 자녀교육 비결 중 하나.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일절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까진 충분히 놀리되 책과 음악, 자연을 가까이 두게 했다. 피아노와 관현악을 전공한 두 딸과 마찬가지로 막내아들 이상훈 동문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다. 한국청소년연맹 ‘아람단’에 가입시켜 며칠씩 시골에 머물면서 산과 들을 거닐게 했고 밤하늘의 별도 보게 했다. 이 동문은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제때 밥 잘해주고, 집에 와서 편하게 잘 자도록 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리 보낸 질문지를 통해 부모님이 다 서울대 출신이어서 대학입시가 무척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고 묻자 이상훈 동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못했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서울의대’란 단어가 익숙했어요. 주위 어른들이 당연히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믿었죠. 요즘 말로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집에서 의사가 되라고 압박을 줬다면 오히려 반발심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입시 부담은 전혀 없었어요. 중2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성적이 급상승해 고등학교 때부턴 전국에서 100등 권 안팎에 들었습니다.”

이상훈 동문은 국내 최초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스포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스포츠의학 전문가다. 뉴욕 양키스 선수들을 전담 진료하는 콜롬비아대학병원에서 임상강사를 지낸 것이 계기가 됐다. 스포츠의학은 일반 의학과는 달리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선수에게 제 기량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핵심. 2009년 귀국 후 이 동문은 부상 때문에 은퇴를 고려 중인 프로 여자배구 선수를 치료해 성공적으로 복귀시켰고, 입소문을 타고 다른 선수들이 찾아오면서 국가대표 배구팀 팀닥터를 맡게 됐다. 매년 200여 명의 선수를 치료한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사라는 점에서 남편과 아들은 똑 닮았습니다. 이도영 이사장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전공 서적에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죠. 1977년 국내 처음으로 컴퓨터단층촬영법(CT)를 도입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상훈 병원장이 한국에선 초창기였던 스포츠의학을 도입해 발전시키고 있는 것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죠. 최신 진단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환자와 대면하는 진료 스타일까지 닮았어요.”

1만 건이 넘는 정형외과 수술을 집도해왔지만, 이도영 동문은 수술을 앞둔 상황에선 항상 다시 공부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2대 병원장 재임 시절 당시 충무병원을 물려받아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킨 이 이사장은 케이블TV에 36회 출연해 가장 흔한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 강의했고, 이를 알기 쉽게 재편집해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병원의 존재 이유는 환자의 치료에 있다는 신념 하에 반세기 동안 의사 외길을 걸어온 이도영 동문. 병원의 기업화를 경계하면서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는 동료와 후배 의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윤경 동문은 주저 없이 그를 “존경한다”고 말한다.

“가족은 생활 공동체예요. 자녀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자랍니다. 그러니 부모의 생활 태도는 자녀 앞날의 이정표가 되죠. 남편은 좋은 의사인 동시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모르게 깨닫게 해줬어요. 시부모님 살아생전엔 얼굴 한 번 붉혀본 적이 없는 효자였고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윤경 동문은 병원 대표로서 남편과 아들을 든든히 뒷바라지하고 있다. 2007년 모교 간호대동창회장에 취임해 간호대학 설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올해 3월부턴 본회 상임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나경태 기자

*서울대 동문 가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선수’들과 겨뤄 팬텀싱어 3위…“도전하는 과정이 짜릿”

4중창단 ‘레떼아모르’ 리더
길병민 동문

최근 데뷔 앨범 ‘꽃 때’ 발매
서울·부산·고양 순회공연도

“과거의 성적이 평생의 나를 규정지을 순 없습니다. 결과보단 도전하는 과정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끊임없이 제 노래를 갈고닦아 유일무이, 대체 불가능한 성악가로 거듭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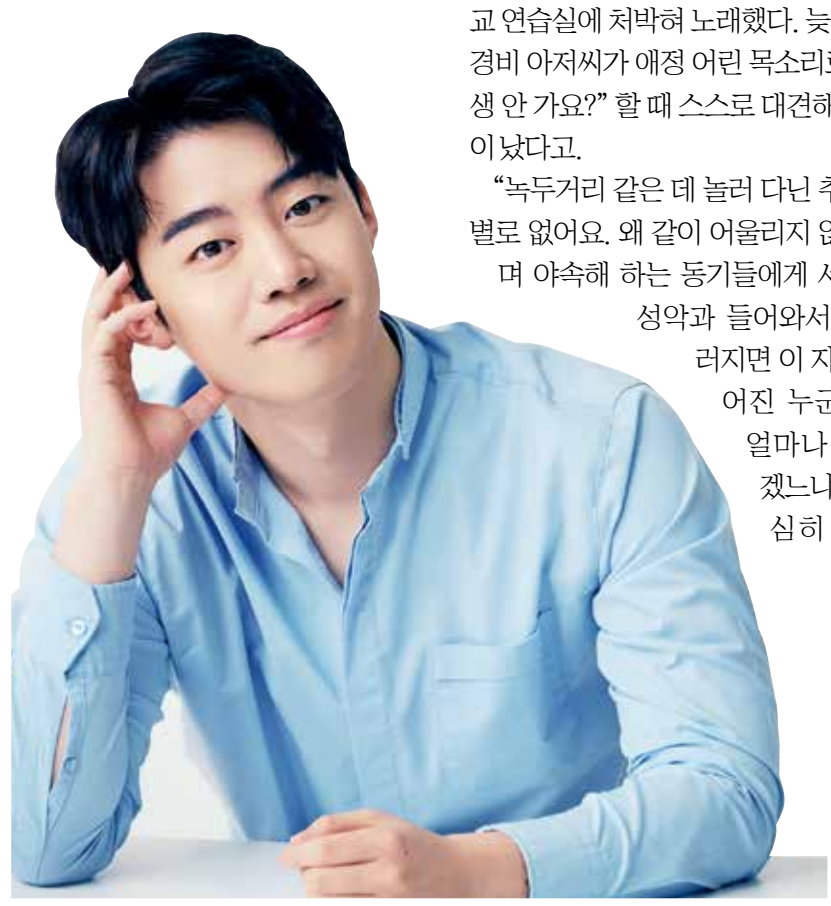
오페라 가수 길병민(성악13-17) 동문은 최근 종영한 JTBC ‘팬텀싱어3’에 출연, 4중창단 ‘레떼아모르’를 이끌어 3위에 입상했다. 팬텀싱어는 성악, 국악, 뮤지컬, K팝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실력파 보컬리스트를 총망라하는 크로스오버 오디션 프로그램. 정상에 오르지 못한 자의 결기 어린 다짐 같지만, 길 동문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신예 성악가다.

동아 음악 콩쿠르 등 권위 있는 국내 대회의 우승을 휩쓸었고, 2016년 프랑스 똘루즈 국제성악콩쿠르 최연소 베이스 우승, 2017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성악콩쿠르와 비엔나 옷토에델만 콩쿠르 우승, 2018년 오페라 크라운 국제성악콩쿠르 초대 우승 등 굵직굵직한 수상 이력만 나열해도 숨이 찰 지경이다. 3위로는 성에 안 찰 듯한데 “감사한 결과”라고 말하는 그를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국내외 성악콩쿠르 우승은 제게도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타고난 사람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 덕분에 성장해왔어요. 전 세계 대회 일정을 검색해 몇 년 치 플랜을 짰습니다. 수많은 콩쿠르에 참가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입상은 무대에서 보여준 역량뿐 아니라 향후 발전 가능성과 해당 콩쿠르가 추구하는 상품성까지 종합 평가된 결과라는 점이었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조금씩 무르익기 시작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더군요. 스무 살 때 뜻을 세워 10년 후쯤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빛을 보게 됐어요.”

길 동문은 2019년 8월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선발돼 활동하다가 팬텀싱어 출연을 결심하면서 사표를 냈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영국 최고의 오페라 극장으로 조수미, 연광철, 이용훈, 김정훈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앞서 활약한 꿈의 무대. 언어, 연기, 문화, 인터뷰 스킬까지 톱스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집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다. 오페라와 클래식의 가치를 잘 아는 그였기에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나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저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엄마의 자장가를 들을 때, 아빠가 흥겹게 부르는 노래를 들을 때 행복했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선택하게 됐어요. 음악이 좋아 예술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성악을 전공하기 시작하자 소속 집단의 강요가 생겨났습니다. 너는 성악만 해야지, 클래식만 해야지 하는. 음악은 국한돼 있지 않은데 그런 음악을 깊이 공부하려니까 특정 장르에 갇히게 되더군요. 그러나 삶이 그런 것처럼 노래도 무한한 확장이자 크로스오버라고 생각해요. 장르를 초월한 노래꾼이 되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열정이 국경을 뛰어넘은 걸까.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길 동문이 나간 문을 열어뒀다.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이 사표 내고 뛰쳐나간 단원의 적을 걸어둔 것이다.

화려한 수상 이력과 준수한 외모. 모든 걸 다 가진 귀공자처럼 보이지만, 길 동문이 버티고 일어선 역경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모교 입학과 동시에 독립해 제 손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학교 연습실에 처박혀 노래했다. 늦은 밤, 경비 아저씨가 애정 어린 목소리로 “학생 안 가요?” 할 때 스스로 대견해져 힘이 났다고.

“녹두거리 같은 데 놀러 다닌 추억은 별로 없어요. 왜 같이 어울리지 않느냐며 야속해 하는 동기들에게 서울대 성악과 들어와서 게을러지면 이 자리 떨어진 누군가가 얼마나 분하겠느냐며 열심히 살자고 독려했죠. 함께 연습했던 동기들 모두 힘든 과정을 잘 이겨냈고 지금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냈습니다. 만나면 서로를 흐뭇하게 보게 돼요.”

길 동문은 모교를 ‘귀감이 되는 존재들이 도처에 널린 곳’으로 회상했다.

“1학년 때 ‘기초’ 독일어 수업을 듣는데 수강생 대다수가 ‘기초’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도 늘었고 시험에서도 몇 문제 안 틀렸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뒤에서 2등이었습니다. 교수님께 항의했더니 ‘잘했는데 다들 만점이라…’ 하는 답을 들었어요. ‘과연 서울대구나’ 생각했죠. 스터디그룹을 짜서 같이 공부했던 타 전공 선배들에게 ‘어쩜 이렇게 경쟁심이 없고, 대가 없이 다 가르쳐 주느냐’ 물었습니다. ‘즐겁고 좋으니까. 넌 네 전공에서 그렇게 할 거 아냐. 우린 너처럼 무대에 못 서. 그리고 너처럼 노래 못 해’라고 답하더군요. 그때 명함 내미는 데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팬텀싱어 출연을 계기로 더 널리 이름을 알린 길병민 동문은 지난 10월 6일 데뷔 음반 ‘꽃 때(A Time to Blossom)’를 발매했다. 한국 가곡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말로 쓰인 창작 가곡에 집중한 이번 앨범은 성악가로서 그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동시에 관객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27일엔 서울, 11월 10일과 12일엔 부산과 고양에서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나경태 기자

애니스생활가전

KOREA CONSUMER SATISFACTION BRAND 2019 TOP 大賞 ECONOMY-F 소비자만족브랜드

Anys

오직 소비자만을 위한
Anys, 국민 물걸레 청소기

힘겨운 물걸레 청소로부터의 해방
더이상 엎드려서 물걸레 청소하지 마세요
귀찮던 청소시간이 즐거운 청소시간으로

손목과 무릎을 지켜드리는
애니스, 무선물걸레 청소기
JB2020S

www.anyshomelife.com | 고객센터 1899-4566

ICT 표준화와 시험인증의 글로벌 리더, TTA

TTA는 ICT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발굴·제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표준화 시험인증 전문기관입니다.

TTA와 함께 ICT 산업기술 및 기술진흥을 이끌어 갈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031)724-0114, http://www.tta.or.kr

미래를 위한 인력개발원의 앞선 움직임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앞선 기술
4차산업에 알맞은 첨단 교육과정으로 기술력 향상을 돕습니다
3D프린팅 | 빅데이터 | AI | IT정보통신 | 정보보안 | IoT | 스마트팩토리 | 로봇 | 드론 등

앞선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등 교육생들을 위한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앞선 네트워크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 개 회원사 네트워크가 취업지원 및 교육 연계에 앞장섭니다

전국 7개 인력개발원
부산 | 인천 | 광주 | 경기
충남 | 전북 | 서울

공식 홈페이지
www.korchamhrd.net

출퇴근재해 부담없이 산재신청하세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노동자~사업주 모두 WIN-WIN!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2016.9.29.부터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고객 상담 및 안내 1588-0075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모두에게 WIN-WIN!

01 노동자에게는 이렇게 지원해드려요.
- 병원 치료비(요양급여)와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하고,
-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병증관리, 재요양 등 사후관리까지 해드립니다.

02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장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신청!

01 산재신청?! 어렵지 않아요.
출퇴근재해 발생 시 가까운 산재지정 의료기관(접수대행)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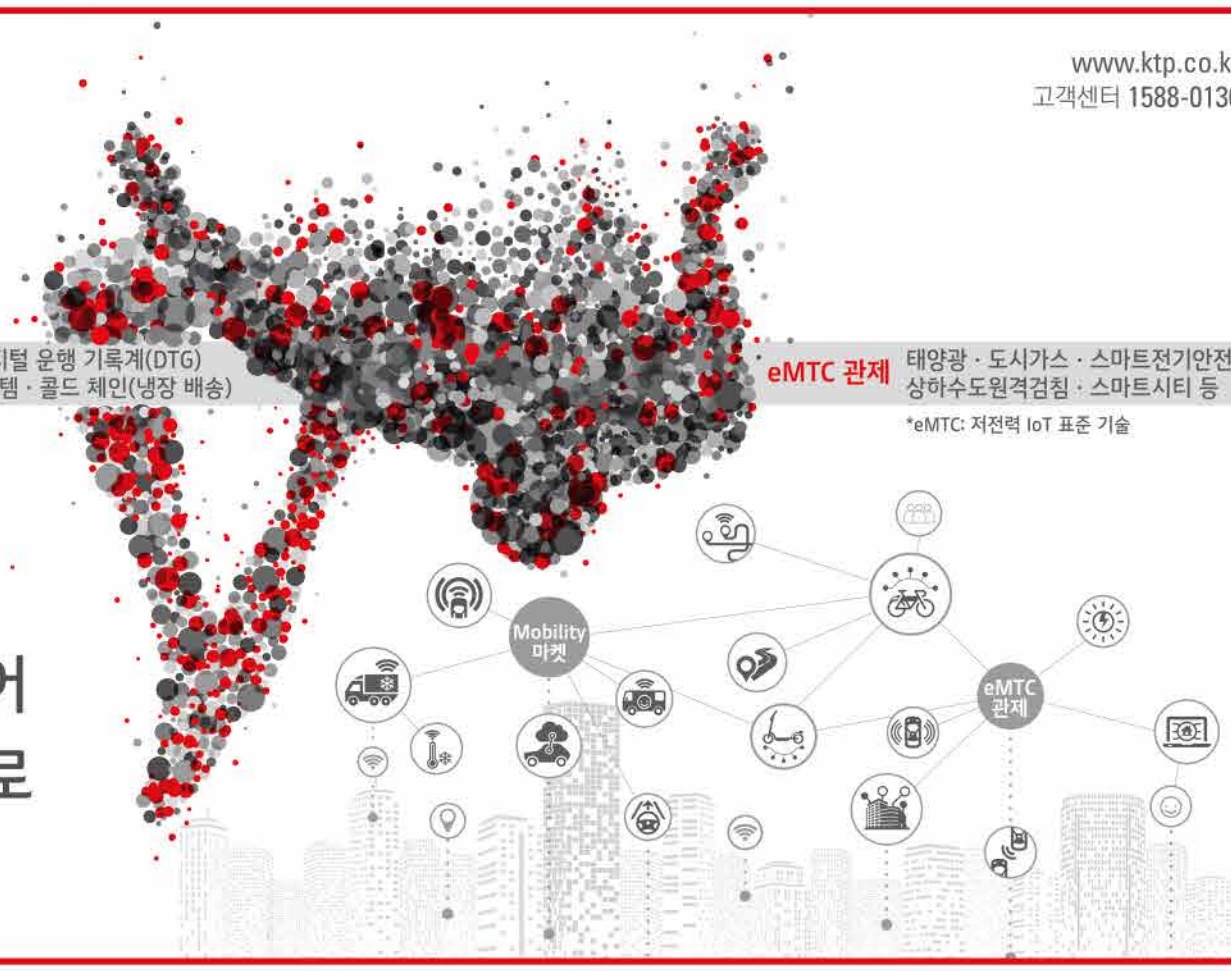
02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보험사 포함)와 합의 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kt powertel

www.ktp.co.kr
고객센터 1588-0130

Mobility 마켓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 통신형 데이터 차량용 단말기(MDT) ·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
퍼스널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시스템 · 콜드 체인(냉장 배송)

eMTC 관제 태양광 · 도시가스 · 스마트전기안전
상하수도원격검침 · 스마트시티 등
*eMTC: 저전력 IoT 표준 기술



kt powertel,
대한민국 1등 무전통신 기업을 넘어
"KT그룹의 IoT 전문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합니다.

친환경 로하스로 헬스 & 웰빙
ILDONG 일동후디스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한 든든한 한컵!

정상적인 면역기능에서 장건강/배변까지 간편하게~
산양유단백 등 5대 단백질과 8종 기능성분 플러스+

- 근육을 위한 단백질 밸런스(동물성:식물성=6:4)
-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
-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 장건강, 배변을 위한 프리바이오틱스
-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한 비타민
- 콜라겐 500mg, 류신 2000mg 함유(부원료)

5대 균형 단백질
8종 기능성 영양소

간편하게 즐기는 스틱형 출시! NEW

구입상담 02-2049-2066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www.foodis.com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The Best **Glocal** University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

전북대학교는 우수 학생 유치와 교육, 연구 경쟁력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알찬 대학으로 나아갑니다.
분권과 공감, 융합으로 대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과 따뜻하게 동행하며
미래 100년을 향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나의 취미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 사진이 치료제”

사진작가 임창준 (치의학74-80) 이엔이치과 원장

어떤 취미는 삶과 정반대다. 온종일 고개를 숙이고 컴컴한 사람의 입속을 보는 게 업인 사람이 있다. 치의학이라는 형이하학적 영역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만 통하면 그의 시야는 넓어진다. 하늘 높이 움트는 새순으로 눈길이 뻗고, 종교 성지의 숭고함과 신앙까지 담아낸다.

형이하학에서 형이상학으로, ‘감성에서 영성으로’. ‘사진을 통해 나 자신을 치유했다’는 임창준(치의학74-80) 이엔이치과 원장의 사진 연대기다. 그는 프랑스 ‘까루셀 드 르브르 아트페어’, ‘4인의 감각전’ 등 10여 차례의 단체전과 개인전을 열었다. 올해 치대 개학 100주년을 기념한 재능기부 전시회도 개최했다. 지난해 묵상사진집 ‘라 베르나’를 냈고 포토저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8월 31일 서초동 임 동문의 병원을 찾았다. 갤러리처럼 자신의 사진작품을 걸어놓은 길다란 복도 끝에서 그는 한창 임플란트 수술 중이었다. 빠듯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진 이야기를 들었다.

“본과 3학년 때 치대 사진동아리 ‘포토미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진반 반장이던 동기에게 많이 배웠어요. 형편이 어려워 사진 찍을 생각도 못 했는데 좋은 카메라를 쓰지 않아도 된다더군요. ‘똑딱이(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로 입문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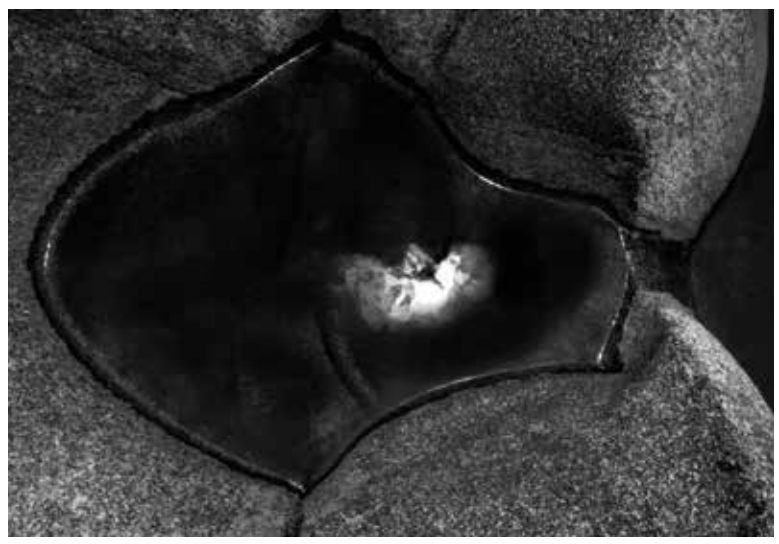
많은 청년이 그렇듯 그도 생업을 갖고 부모가 되면서 취미와 멀어졌다. “사진을 오래 찍는 편이에요. 나들이 가서 찍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뭐해, 빨리 와!’ 해서 보니 가족과 같이 가서 나 혼자만 있더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사진을 접었죠.”

이후 찍은 사진이라곤 수술 전후를 기록한 임상사진뿐. 자녀를 다 키운 후에야 카메라를 쥘 수 있었다. 환갑을 목전에 두고 달라진 사진 트렌드를 좇으려 중앙대 사진 아카데미부터 등록했다. 한정식(국어교육55-59) 중앙대 사진학과 명예교수의 특강도 그곳에서 들었다. “조작으로만 치부했던 연출 사진이 순수 사진 못지않게 중요해졌고, ‘개념 사진’이 대세라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총 3년 과정에 학기마다 절반씩 우수수 이탈했지만 다시 쥔 카메라가 너무도 소중해 끝까지 버텼다. ‘여유로운 직종의 취미 생활’로 치부받거나 ‘치과 사진만 찍으라’는 평에 이를 악물고 출사를 다니고, 갤러리를 찾아 안목을 키웠다.

미를 추구하는 사진 작업은 뜻밖의 ‘셀프 치유’ 효과가 있었다. 환자를 보며 받았던 스트레스와 압박감, 우울감, 외로움이 일거에 날아간 것이다. “이상하게 새만 보면 담고 싶었어요. 치과의사의 직업병인 디스크 탓에 15도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어 언감생심이었죠. ‘몸 펴기 운동’을 하면서 회복했고, 어느새 고개를 완전히 젖힐 수 있게 되더니 나무 꼭대기의 꽃과 새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렌즈를 들여다볼수록 피사체에서 실물 너머의 의미들이 보였다. 무성한 잎이 아닌 새싹에서, 만개한 꽃보다 터지기 직전의 꽃송이에서 더 풍부한 생명력을 읽었다. ‘생과 사’로 제목을 붙인 사진이 있다. 마른 감꼭지가 매달린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찍은 작품이다.



Eye of God, 66×100cm, Pigment Print, 2017

“사진이란 게 이상해요. 찍고 나면 그다음엔 없어요. 창덕궁에서 그 가지를 보고 여러 장을 찍은 다음 해 새싹이 조금 더 통통할 때 찍으려고 다시 갔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가지치기를 했대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잊지 못할 순간이 또 있다. 비가 개고 구름에 가렸던 태양이 나타난 어느 날이었다. 반짝하는 곳을 좇아 보니 바위에 고인 물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웅크린 태아의 형상. 흡사 천지창조를 보는 듯한 경이로움이었다. 신들린 듯 셔터를 누르고 ‘신의 눈(Eye of God·위 사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최근 그는 ‘영원과 불멸’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1991년 단국대 교수 시절 입교한 가톨릭 신앙의 영향이 크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찍을 수 없나 싶었어요. 신부님께 부탁해 장노출로 성당 미사를 찍어보기도 했는데 어렵더군요.” 자신의 세례명 ‘프란치스코’와 같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상(예수의 다섯 상처)’을 받은 이탈리아 라 베르나 성지로 향했다. ‘아름다운 사물들 안에서 아름다움 자체를 보았다’는 프란치스코 전기의 한 구절처럼 물상 속에 스민 영성을 담아와 사진집을 냈다.

2007년부터 영등포 요셉의원을 찾아 노숙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을 무료 진료하는 임 동문은 진료가 일찍 끝나면 카메라를 들고 한강으로 향한다. 멀리 출사를 나갈 때 젊었을 적 사진을 말린 아내가 ‘혼자 못 보내겠다’며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인생 사진’이 나왔냐는 말에 힘차게 고개를 저으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답했다.

“치대 100주년 기념전을 준비하면서 작품을 정리하다 보니 과거의 나로부터 미래의 나를 향한 길이 보이더군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대학교수 재직과 개원 시절, 신부님의 가르침까지… 일종의 심리 치료였죠. 지금까지 인물을 잘 찍지 않았지만 이젠 사람의 삶에 대한 사진도 찍어보고 싶어요. 내가 그랬듯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스트레스 덜 받고 즐거운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사진 치유를 펼치고 싶습니다.” 박수진 기자

| 바른 식생활 | ① 통곡물 자연식의 기본 이해

코로나 시대, 의식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랫동안 통곡물 바른 먹거리를 실천하고 알려왔던 민형기 청미래유기농 대표가 동문들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지혜를 나눕니다. 편집자 주

10개월이면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민형기 (농공67입) 청미래유기농 대표

우리 몸은 평균적으로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세포 하나하나는 바로 나의 소우주이므로 나의 몸은 60조의 소우주로 구성된 무한한 대우주이다.

니체는 몸의 위대성에 대해 “몸의 현상은 사람의 의식, 정신, 사유, 의지보다 상위체계다”라고 100년도 훨씬 전에 갈파한 바 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진정한 진리인 것이다.

내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수천억개가 소멸되고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는 소멸과 탄생을 부지불식간에 경험하면서, 산술적으로 10개월이면 내 몸은 거의 모두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셈이다. 새로 태어나는 세포는 우리가 날마다 일용하는 음식물로 만들어진다. 건강한 음식물을 섭취하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은 조화로운 자연의 이치이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과 인성을 결정하며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사람에게 조화로운 바른 음식이 바로 통곡물 자연식이다. 통곡물 자연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통곡물은 먹을 수 없는 겉껍질만 도정해 버리고 배아(눈)와 겨는 최대한 남긴 곡물이다. 배아와 겨 부분에 곡물의 생명영양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는 백미나 흰 밀가루 같은 당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백미, 보리, 밀, 수수, 메밀, 율무 등은 단지 밥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종류에 따라 왕겨만 벗긴 통곡에서 10~30% 정도를 더 깎아낸 것이다. 통곡물 구분상 쌀은 현미로 부르고 보리, 밀, 수수, 메밀, 율무 등은 ‘통’자를 접두사로 붙여 부르기도 한다.

둘째,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되는 식자재를 중심으로 조리한다. 우리에겐 우리 땅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우리 몸에 조화로운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백리 밖의 물은 마시지 말라”고 했다. 우리 땅에서 제철에 생산되는 각종 식재료는 영양분과 생명력이 충만하며 값도 저렴하다. 또한 GMO 식품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셋째, 친환경, 유기농, 자연산 식자재를 사용한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우리 농촌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 각종 제초제, 화학비료, 농약으로 오염되어 있는 관행 농산물은 “안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자.

넷째, 통곡물과 채식 식재료 80% 이상, 동물성 식재료 20% 이하로 조리한다. 사람의 몸에 조화로운 음식은 곡·채식 중심으로 동물성을 일정부분 곁들이는 것이다. 치아의 구성, 소화기관의 구조와 정서 등 생리적 조건이 그러하다.

다섯째, 우리 전통밥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전통 밥상은 다양한 발효의 지혜와 음양오행의 기운을 담아 차려 내는 완벽한 생명 살림 밥상이다.

여섯째, 온 생명 전체식이다. 가능하면 식재료의 잎, 줄기, 뿌리, 껍질까지 전체를 먹는다. 멸치, 실치 등 작은 종류의 생선도 이상적인 전체식이다. 채소의 경우 땅의 풀과 바닷풀(해조류)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해당된다. 전체식은 모든 생명 요소를 가장 온전히 섭취하는 자연식이다.

화제의 동문 유튜버

(9) ‘일당백’ 정승민 (인류89-95) 한신대 초빙교수

시공을 초월한 고전, 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할 100권의 책’이란 뜻의 ‘일당백’은 2017년 5월 팟캐스트에서 시작해 올해 초 유튜브 채널로 거듭났다. 시즌1에서 이미 100권의 책을 다뤘고, 지난해 11월 시즌2를 시작해 10월 11일 현재까지 40권의 책을 다뤘다. 회를 거듭하면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이야기와 근현대사 특강, 시청자가 참여하는 공개방송 등 소재와 제작 방식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일당백에서 ‘지식 자판기’ 역할을 하는 정승민(인류89-95 한신대 초빙교수·사진) 동문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유튜브, 나아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계기는.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줄곧 말과 글을 이용한 콘텐츠 생산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2014년경 인문 분야의 책을 기획하던 중 글보다 말로 하는 콘텐츠가 대중의 접근이 쉽다는 지인의 권유로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오디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수익성을 더 높이고자 올해 초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유튜브 영상의 퀄리티가 공중파 교양프로그램 못지않다. 제작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유튜브 채널 개설을 고민하던 중 영상 제작에 종사하는 애청자의 제안을 받았다. 촬영, 편집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관련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업 모델을 만들었다. 새삼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구독자 수가 9만명 정도다. 퀄리티에 비해 적은 듯한데.

“‘시나브로’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일당백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간과 유행 속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콘텐츠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고전과 명작을 다루기 때문에 더디지만 꾸준히 구독자와 조회 수가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 좋은 콘텐츠의 목소리는 아무리 가냘프더라도 귀를 기울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추천 영상은 무엇인지.

“사기, 파우스트, 이방인과 페스트를 다룬 영상이 우선 떠오른다. 세상을 건너고 세월을 견디는 법을 생각하게 하는 책을 고전이라고 여기는데, 원작을 얼마나 잘 살려 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론 의미가 깊었다.”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대기업 연봉엔 아직 못 미친다. 자체 유치하는 광고가 들쭉날쭉해 어려움은 있지만, 제작 취지에 공감하는 광고주들이 큰 힘이 된다. 돈을 벌고 꿈을 이루는 것이 사회생활이라 할 때, 좋은 책과 생각을 소개하고 소통하면서 그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회생활이 즐겁다.”

-일당백 홍보 한 말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과 사람 사이에 벽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인간은 항상 이야기에 목말라 한다. 그 갈증을 풀어줄 ‘1급수’는 ‘시간의 청문회’를 통과한 고전일 것이다. 고전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일당백이 중개자가 돼줄 수 있다. 일당백을 통해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쌓아갔으면 한다.” 나경태 기자

화제의 전시

'문 닫지 않아요'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언제 이런 걸 다 했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 고고인류71-75)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시실을 클릭하면 드는 생각이다. 차곡차곡 가상현실(VR)로 보존된 지난 특별전, 유물 클로즈업 동영상 등 퀄리티 높은 볼거리가 가득하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부랴부랴 급조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몇 년간 배기동 관장의 주도 하에 박물관의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문해력)'를 키웠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물관 소장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실제 전시에 VR을 접목하면서 '스마트 박물관'을 지향해왔다. 이같은 노력이 지금 상황에 빛을 발한 것이다.

온라인 전시관은 박물관 홈페이지 '전시' 메뉴 아래 있다. '가야본성', '지도예찬', '황금문명 엘도라도', '칸의 제국 몽골', '왕이 사랑한 보물',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등 2017년부터 열린 전시들을 VR로 볼 수 있다. 그래픽이 아닌 실제 전시장을 다각도로 촬영해 만든 것이다. 경주·전주·부여·대구·광주 등 소속박물관 전시까지 볼거리가 풍성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에트루리아 VR 전시 장면.

VR 관람은 발품 대신 손품이 든다. 전시장 구석구석 표시된 포인트를 눌러 따라가면서 시간 제한 없이 전시실을 둘러볼 수 있다. 전시품마다 해설도 달렸다.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전을 보다가 모자상 앞의 포인트를 누르자 '기원전 3세기 전반 그리스 양식의 추모용 조각상으로 여인의 오른팔에 그녀의 이름 라르티아 벨키네이가 새겨져 있다'는 설명이 뜬다.

'미술품은 직접 봐야 제맛'이라지만, 엄중하게 관리되는 유물이라면 오히려 온라인에서 육안보다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다. 온라인 전시관의 유물 중심 동영상이 그렇다. 손창근(섬유공학53졸) 동문이 재작년 박물관에 기증한 추사의 걸작 '불이선란도' 영상에서 그림 곳곳의 글씨와 인장을 자세히 보여준다. 등장인물이 2,000여 명에 달하는 8폭 병풍그림 '태평성시도'를 확대한 영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된다. 신라시대 금제 허리띠에서 좁쌀만 한 디테일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여주기도 한다.

이항복의 호성공신 교서 영상에서는 전문 학예사가 큐레이션을 통해 '누런 것은 비단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며 실제로 지나치기 쉬운 고문서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짚어준다.

박물관은 지난 7월부터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 기획전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오랫동안 휴관했다. 이 전시를 축약한 영상도 온라인 전시관에 있다. 관람객을 맞이하기 어려운 때에도 스마트한 박물관의 온라인 전시만큼은 늘 열려 있다. www.museum.go.kr

박수진 기자

EXHIBITIONS

모교 미대 온라인 동문전

10월 20일~11월 20일

장윤우 동문 '자화상. 잎' 20x30cm, 1990

미대동창회(회장 권영걸)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교 미대 온라인 동문전 'ART ON-THE-LINE 2020'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문전은 약 400명의 회원이 참가하며 작가별로 3점의 작품 및 약력이 소개된다. www.snuart.or.kr

조인호 초대전 '유고군산군도'

11월 27일까지 서초동 한원미술관

유고군산군도-관리도 만물상, 2020

세밀한 묵선으로 거대하고 역동적인 산그림을 그리는 화가 조인호(동양화96-03 모교 동양화과 교수) 동문의 전시. 신선이 머문다는 선유도와 무녀도 등 고군산군도의 풍광이 작가의 발자취에 따라 굽이치고 솟아오른다. 무료 입장이며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진행한다. www.hanwon.org

BOOKS

한시운자편람

이재홍(상학57-61) 인천향교 생원 /성안당

한시의 세계에 들기 위해서는 평측법(平仄法)과 압운(押韻)이란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 관문은 한문을 자국어로 사용하는 중국인에게는 프리패스이지만 음운체계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는 속말로 '넘사벽'이다. 이 벽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넘었고, 어떻게 과거에 합격했을까? 그들은 대여섯 살부터 서당식 육성음독과 암기로 단련하고 과거급제라는 양반사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당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특권은 없다. '한시운자편람'은 바로 조선의 사대부가 누린 조기교육과 출사특혜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책이다.

살아가며 죽어가며

장동만(철학55-61) 전 동아일보 기자
개인 출판

뉴욕에 거주하는 장동만 동문이 100여 편의 글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책에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죽음을 관망하는 작가의 오래된 인생 경륜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작가는 헬렌 니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 나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말하며, 웰리빙은 웰다잉이란 등식을 만든다"고 말한다. 이 책에 관심 있는 동문은 이메일(dmjang36@gmail.com)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즐거운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다

이병훈(의학60-66) 대한의사협회 고문
퀀텀앤북스

행복한 삶을 갈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병훈 동문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저 행복하게 살겠다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이 책 전편 내내 흐르는 그의 주장은 허황한 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복 비법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행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한다. 그리고 행복하기로 정했으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앞으로 가야 할 것 또한 강조한다.

시인과 나무, 그리고 불빛

오생근(불문66-70) 모교 명예교수 / 문학판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번역가로 이름 높은 오생근 동문의 첫 산문집. 오 동문은 초현실주의 문학연구서와 평론집을 여럿 냈지만, 산문집을 낸 건 비평가 등단 50년 만에 처음이다. 책은 1부 불빛을 그리워하며 방황하던 젊음, 2부 프랑스 시 깊이 읽기, 3부 스승, 선배, 친구에 관하여와 4부 시와 소설에 대한 비평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2부 '프랑스 시 깊이 읽기'가 눈길을 끈다. 저자의 프랑스 유학시절 경험과 불문학자로서의 해박한 지식, 문학비평가로서의 예리한 분석이 그의 따뜻한 숨결에 실려 독자들을 친근하게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베를렌, 발레리 등 11명 시인들의 시로 안내한다.

무대 위의 클래식

조성호(식물73-77) 전 인하대 교수 / 예솔

조성호 동문이 2017년부터 개인 블로그에 남겨온 클래식 공연 감상 후기 200여 편 중에서 80여 편을 선별해 모은 책. 수많은 국내외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독주회·실내악·관현악 공연 후기를 담고 있다. 저자의 클래식 음악을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듣고, 가슴이 느끼는 대로 쓴' 공연 감상이므로 일반 클래식 팬들부터 연주자, 공연관계자 등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으로 클래식 감상 초보를 위한 '클래식 공연 감상 가이드'를 수록해 클래식 음악 감상과 공연 관람에 입문하기 쉽도록 했다.

행복은 우리 맘에 있어요

박시호(AMP 60기) 행복편지 발행인
데이타포스트

행복 전도사 박시호 동문이 200여 명의 사람을 만나 행복에 대해 듣고 그들의 얼굴 사진을 찍어 소박하게 엮은 책. 박시호 동문 외 118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물들이 겨우 두 페이지의 작은 공간에 그들만의 행복사연과 주제에 맞는 인물사진을 부끄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 소개된 행복편지 가족 118명의 글을 보면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력과 재력과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킹 세종 더 그레이트

조 메노스키(정윤희 옮김) / 핏북

SF '스타트렉'의 작가인 조 메노스키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를 둘러싼 이야기를 역사 판타지 소설로 썼다. 5년 전 처음으로 '한글'을 접한 그를 매료시킨 건 한글이 가진 기능과 우수성도 있지만 한글 창제를 가능하게 했던 사람, 세종이었다. 보통 글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백 년의 문화적 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글은 세종 한 사람이 불과 수년 만에 만든 글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세종에 대한 자료를 찾아 공부하던 메노스키는 세종에 대한 궁금증이 점차 영웅숭배의 마음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세종대왕의 매력을 장편소설에 녹여냈다. 세종대왕 관련, 외국 작가가 쓴 첫 소설로 의미가 깊다.

CONCERTS

피아니스트 이진화 독주회

10월 28일 신촌동 금호아트홀 연세

피아니스트 이진화(기악00-04·사진) 동문은 모교 우등 졸업 후 미시간대에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피아노연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시 오케스트라 협연과 이탈리아, 체코 등지의 국제음악제 연주 등을 펼쳤고 세종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베토벤 소나타 제28번 A장조 등을 연주한다.

문의: 02-541-2512

CULTURE CHART

10월 첫째 주 기준

베스트셀러 자료=교보문고

순위	도서명	작가
1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2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3	돈의 속성	김승호
4	아몬드	손원평
5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진중권, 서 민 외
6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2020)	윤재수
7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박성혁
8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색과 체
9	규칙 없음	리드 헤이스팅스
10	공부란 무엇인가	김영민

영화(박스오피스) 자료=영화진흥위원회

순위	영화명	감독
1	담보	강대규
2	언힌지드	데릭 보트
3	국제수사	김봉한
4	그린랜드	릭 로먼 워
5	테넷	크리스토퍼 놀란
6	애프터: 그 후	로저 컴블
7	극장판 포켓몬스터 뮤츠의…	유야마 쿠니히코 외
8	그대, 고맙소 :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	
9	어디갔어, 버나뎃	리차드 링클레이터
10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	박준수

뮤지컬 예매 자료=인터파크

순위	공연명	출연
1	그날들	유준상, 이건명
2	킹키부츠	박은태, 김지우
3	고스트	주원, 아이비
4	어쩌면 해피엔딩 LIVE	양희준, 강혜인
5	광주	테이, 민영기
6	배니싱	김종구, 에녹
7	몬테크리스토 10주년 기념공연	카 이, 옥주현
8	시데레우스	이창용, 임찬민
9	썸씽로튼	박건형, 최수진
10	베르테르	카 이, 김예원

클래식 음반 자료=교보문고

순위	음반명	음반사
1	베토벤의 사계, 영혼을 치유하다	DG
2	포레스텔라: MYSTIQUE LIVE	Decca black
3	백건우: 슈만 피아노 독주집	DG
4	랑랑: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DG
5	마흔, 클래식에 빠지다…	클라우드뮤직코리아
6	조성진: 슈베르트 방랑자…(디럭스반)	DG
7	조성진: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디럭스반))	DG
8	클래식을 좋아하세요?…	클라우드뮤직코리아
9	포레스텔라: MYSTIQUE	Decca black
10	조성진: 드뷔시 영상, 어린이 차지…	DG

가요 음원 자료=가온차트

순위	노래	가수
1	Dynamite	방탄소년단
2	취기를 빌려	산들
3	When We Disco	박진영
4	눈누난나	제시
5	마리아	화사
6	오래된 노래	스탠딩 에그
7	다시 여기 바닷가	싹쓰리
8	내 마음이 움찔했던 순간	규현
9	에잇	아이유
10	Dolphin	오마이걸

QLED 8K
초대형으로 홈시네마를 완성하다
대화면으로
영화의 더 큰 감동을 만나다
SAMSUNG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or.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안동일(법학59-63 홍익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지난 9월 10일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에 취임.

김진표(법학67-7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10월 6일 국회 한일의원연맹 신임 회장에 선출.

신창재(의학72-78 교보생명 회장·본회 부회장) 지난 9월 3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선임.

정진엽(의학73-80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9월 21일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초대 의료원장으로 취임.

이미경(가정관리77-81 CJ 부회장) 지난 9월 15일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이사회 부의장에 선출.

정민걸(해양79-83 공주대 교수) 최근 한국환경철학회 회장에 취임.

원용걸(경제81-85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10월 6일 한국국제금융학회 12대 회장에 취임.

진은숙(작곡81-85 작곡가) 최근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에 선임. 임기는 5년.

문희철(영문83-87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지난 9월 3일 국세청 차장에 임명.

이용훈(제어계측83-87 셀레믹스 대표) 지난 9월 7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제4대 회장에 선출.

양윤석(정치84-88 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지난 9월 27일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 방송정책 담당(상무)에 선임.

최유식(외교84-91 조선일보 중국전문기자) 지난 9월 28일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에 선임.

한영수(공법85-90 법제처 기획조정관) 지난 9월 14일 법제처 차장에 임명.

최 석(미학86-90 미타우슨대 교수) 최근 볼티모어 타우슨대 철학과의 첫 한인 학과장으로 임명.

정진강(인류87-94) LG전자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의 제4대 SCM실장으로 내정.

박종수(AMP 63기 국도화학 부회장) 지난 9월 23일 사단법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초대 회장에 선출.

임해종(AMP 72기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지난 9월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7대 사장으로 취임.

이강만(ACAD 80기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부사장) 지난 9월 28일 한화에스테이트 대표이사에 내정.

김세환(ACAD 8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지난 9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

김정렬(SGS 10기 전 국토교통부 차관) 지난 9월 8일 한국교통정보공사(LX) 신임 사장으로 취임.

윤진환(SGS 24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국장급)으로 승진.

이현빈(FIP 16기 전 한전공대설립단장) 지난 9월 14일 한국전력 경영지원총괄본부장에 임명.

수 상

박종수(치의학60-66 박종수치과 원장) 지난 9월 16일 LG복지재단이 수여하는 'LG의인상' 수상. 55년간 무료 진료와 급식 봉사 활동.

김훈동(농학63-69 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지난 9월 14일 정조의 아호 홍재(弘齋)를 붙여 제정된 제7회 홍재문학상 대상 수상.

권오승(행정69-73 모교 명예교수) 지난 9월 18일 '2020년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자에 선정.

성낙인(행정69-73 모교 명예교수·전임 총장) 지난 9월 21일 제16회 경암상 수상자(인문사회 부문)에 선정.

조길원(공업화학75-80 포스텍 교수) 지난 9월 7일 제3회 한국도레이과학기술상 수상자에 선정.

김성철(치의학76-82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최근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시상하는 제10회 반야학술상 수상자에 선정.

양윤선(의학83-89 메디포스트 대표·본회 부회장) 지난 9월 16일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0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여성기업인 25인'에 선정.

윤주영(공업화학83-87 이화여대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석좌교수) 지난 9월 21일 제16회 경암상 수상자(자연과학 부문)에 선정.

정은경(의학83-89 질병관리청장)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황철성(무기재료83-87 모교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지난 9월 21일 제16회 경암상 수상자(공학 부문)에 선정.

이성수(경영86-90 한화디펜스 대표) 지난 9월 28일 한국방위산업학회로부터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수상.

선 웅(분자생물87-91 고려대 의대 교수) 9월 2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여하는 올해 화이자의학상 수상자에 선정.

오준학(공업화학93-98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지난 9월 7일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신진 연구자(응용 부문)에 선정.

이승표(의학95-01 모교 병원 교수)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여하는 올해 화이자의학상 수상자에 선정.

조은진(섬유고분자공학96-00 중앙대 화학과 교수) 지난 9월 7일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신진 연구자(기초 부문)에 선정.

김태정(의학03-09 모교병원 신경과 교수) 지난 9월 11일 열린 '2020 대한뇌졸중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 수상.

이원해(AIP 15기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지난 9월 21일 2020년도 기계로봇산업발전유공 포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신슬기(기악과 4년) 지난 9월 10일 제90회 춘향선발대회에서 춘향 진에 선발.

가 철(AMPFRI 12기 현대렌탈서비스 대표) 지난 9월 4일 31회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석탑산업훈장 수훈.

행 사 외

윤석헌(경영67-71 금융감독원장) 지난 9월 22일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그린금융'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채용박람회를 비대면 개최.

박정훈(사법81-85 관훈클럽 총무·조선일보 논설실장) 10월 16일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국가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를 주제로 관훈클럽 세미나 개최.

김동연(행대원84-86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월 2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자신이 설립한 '소셜 임팩트 포럼' 출범식 개최.

황진하(ACAD 42기 한미우호협회 회장) 지난 9월 15일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등에서 '6·25 한미 전몰장병 헌화식'과 '한미동맹 세미나' 개최.

김문조 동문 외 5명 대한민국학술원상

김문조

채종일

노명호

이영조

권동일

백성희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제65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에서 사회과학 부문 김문조(화학68-72) 고려대 명예교수, 자연과학응용 부문 채종일(의학70-76) 모교 의대 명예교수, 인문학 부문 노명호(국사71-7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자연과학기초 부문 이영조(계산통계74-79) 모교 통계학과 교수, 자연과학응용 부문 권동일(금속공학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 자연과학기초 부문 백성희(식품영양90-9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남기동(경성제대이공학부 43졸 대한세라믹 총연합회 명예회장) 9월 14일 별세(101세)
김허남(행정49-52 전 국회의원) 지난 9월 2일 별세(100세)
이춘림(건축48-53 전 현대중공업 회장) 지난 9월 16일 별세(91세)
김규현(행정53-57 전 KEI 트레이딩 회장) 지난 8월 31일 별세(86세)
반용균(의학53-59 미국 거주) 지난 9월 10일 별세(85세)
이종석(국문54-58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지난 9월 14일 별세(85세)
박창규(교육58-62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지난 9월 22일 별세(84세)
최성홍(행정58-62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지난 9월 17일 별세(82세)
임인택(행정58-63 전 건설교통부 장관) 지난 9월 20일 별세(80세)
변재일(행정59-63 전 부산고검장) 지난 9월 23일 별세(80세)
이해식(국악66-69 전 영남대 국악과 교수) 지난 9월 16일 별세(74세)
유도재(AMP 1기 유한학원 이사장) 지난 9월 7일 별세(88세)

(주) 한미 Vitamin Korea

• 제품명 : 매실엑기스
• 용 량 : 350ml

"김포시 특산물"

매실의 효능 (출처 : 본초강목)

1. 해독작용이 뛰어나다.
2. 만성 변비에 좋다.
3. 체질 개선 효과 있다.
4. 소화불량 위장장애에 좋다.
5. 칼슘 흡수를 높인다.
6. 피부 미용에 좋다.
7. 간장을 보호하고 간기능을 향상시킨다.
8.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회복 정장작용에 좋다.
9. 세포를 튼튼하게 하며 혈액을 정상으로 만든다.
10. 현대인의 몸에 가장 필요한 식품.

회장
정 원 호
(HPM 36기)

|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1015호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빌딩) Tel. 02-783-1313 Fax. 02-783-9915
| 농 장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451번길 13-48 (고촌읍 태리 4-1) Tel. 070-7760-7373 Mobile. 010-4335-5050

www.yc.ac.kr

LG연암학원

연암공과대학교

LG와 함께 만드는 뉴칼라 인재

*뉴칼라(New Collar) 인재 : AI로 무장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재

연암공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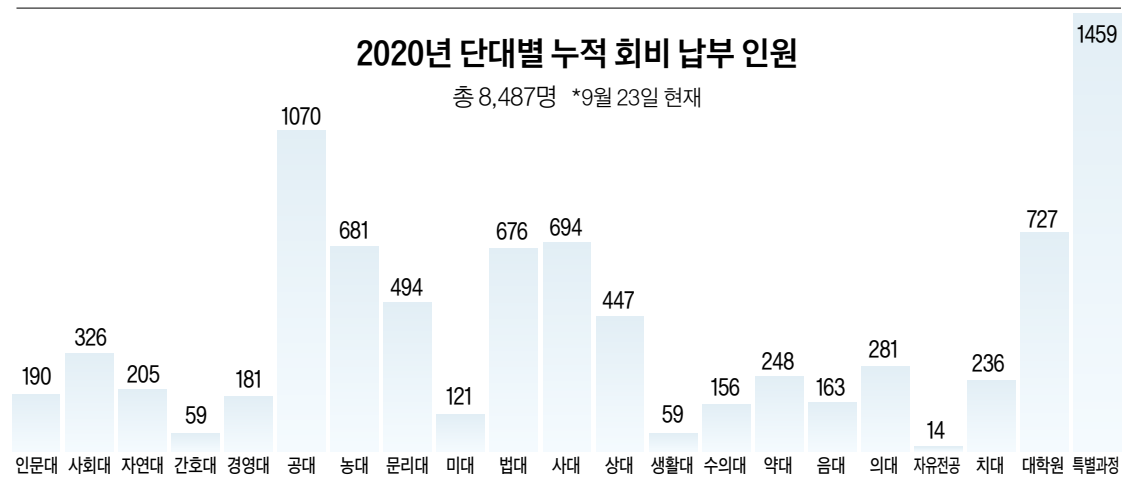
모집학과
전자전기계열 |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조선자동차항공기계계열 | 기계공학과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대기업 취업률 53.4% (2019년 대학자체집계 기준)
전체 취업률 79.5% (2019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유지 취업률 85.2% (2019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일정
수시 1차 2020. 9. 23(수) ~ 10.13(화)
수시 2차 2020. 11. 23(월) ~ 12. 7 (월)
입학문의 055)751-2180~1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3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회장단·자문위원·논설위원·상임이사·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0. 8. 24~2020. 9.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하시면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할인
○제휴 병원 건강검진 우대	○경조 서비스 (실비 부담)
○익년도 포켓수첩 또는 탁상달력 제공	

회비 납부 방법

구 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일반회원	10,000원	30,000원	300,000원 (65세 이상은 200,000원)
이사회원	-	100,000원	700,000원 (65세 이상은 500,000원)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 학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회비·후원금 납부하기' 배너 클릭하면 결제화면으로 연결.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고문
△박희백 의대 51 △현경대 법대 60

자문위원
△김병찬 의대 53 △김상곤 경영대 69

부회장
△전홍택 사회대 72 △박용호 수의대 74
△최의열 사대 79

평생회비 - 이사
△강석봉 공대 73 △고주환 ACPMP 6
△고현숙 가정대 80 △공선섭 문리대 59
△김기범 자연대 85 △김무언 공대 61
△김성수 공대 83 △김성한 경전원 13
△김소연 의대 74 △김승현 사회대 90
△김영근 사대 11 △김원준 행대원 79
△김재승 문리대 55 △김제성 환대원 78
△김종관 공대 82 △김준오 공대 88
△김형곤 경영대 85 △김환철 AMP 82
△나종극 수의대 54 △나형주 공대 73
△남세열 경영대 74 △노성진 문리대 56
△류형준 HPM 40 △문광섭 법대 85
△문영기 공대 69 △문용환 자연대 86
△문정교 사대 91 △민주석 농대 80
△민태홍 ASP 36 △민화식 공대 71
△박명규 ACAD 40 △박상권 SGS 33
△박선영 농대 62 △박수용 공대 93
△박영철 법대 82 △박중욱 사회대 81
△박진호 공대 90 △박현주 미대 87
△배정운 상대 59 △백세범 공대 94
△변성수 인문대 84 △성영란 ABKI 10
△송 학 행대원 01 △신교임 융대원 13
△신석정 상대 60 △신성식 미대 54
△양병이 농대 64 △양일우 자연대 72
△윤종규 공대 59 △이국희 경영대 66
△이대복 행대원 77 △이동섭 경영대 88
△이동수 공대 54 △이민재 자연대 00
△이상득 상대 57 △이상원 사회대 84
△이선하 농대 65 △이안희 상대 54
△이완종 ABKI 5 △이재윤 공대 74
△이정훈 자연대 72 △이종구 음대 65
△이종섭 사회대 83 △이찬원 공대 07
△이청원 공대 62 △이태근 농대 78
△이학곤 ACPMP 13 △이호순 공대 61
△임원빈 AMP 80 △임희문 FNP 1
△장동원 GLP 34 △장재혁 보대원 99
△정성효 사회대 81 △정재호 법대 67
△정종철 공대 72 △정주섭 사대 52
△정지수 공대 66 △조명한 문리대 57
△조영주 공대 74 △조태환 인문대 72
△지형준 약대 53 △최일균 치대 53
△한공창 공대 72 △한상용 HPM 42

평생회비 - 일반
△강규영 농대 68 △고인수 사대 73
△공성현 미대 07 △곽병근 공대 61
△권두현 사회대 13 △권순옥 사대 63
△권응렬 경영대 83 △권일근 FIP 9
△금교선 사회대 92 △김광림 행대원 80졸
△김규진 치대 94 △김기복 공대 70
△김도현 농생대 90 △김동욱 공대 06
△김범조 사회대 74 △김석준 경영대 86
△김선빈 약대 89 △김성재 공대 16
△김수현 공대 84 △김수현 치대 11
△김승현 미대 14 △김영훈 자연대 16
△김용득 농대 71 △김용찬 인문대 96
△김용태 공대 04 △김원호 공대 13
△김은혜 의대 07 △김응서 자연대 03
△김인철 AIP 27 △김종명 농대 75
△김지영 공대 06 △김지훈 약대 97
△김춘안 문리대 66 △김태동 상대 65
△김태진 경영대 00 △김현숙 음대 79
△김홍걸 법대 70 △나도현 AMPFRI 42
△나병주 공대 92 △남궁향미 가정대 71
△노정완 인문대 83 △리신호 농대 74
△민세리 의대 14 △박광식 사회대 89
△박기범 사회대 15 △박승하 AMP 88
△박윤정 자연대 06 △박장진 공대 74
△박재영 자연대 14 △박재현 농생대 08
△박준희 행대원 11 △박형순 공대 03
△배광민 공대 04 △백낙민 상대 60
△백인종 농대 64 △백인창 법대 69
△변기홍 공대 78졸 △선우하식 사대 80
△손계욱 공대 70 △송규헌 자연대 15
△송명섭 상대 53 △신강재 공대 95
△신기채 약대 80 △신동호 농생대 96
△신범준 공대 11 △신승한 법대 00
△신재혁 농생대 14 △신정현 인문대 70
△신진호 공대 95 △심헌교 공대 10
△안유진 사대 08 △양명희 인문대 84
△양재만 수의대 91 △엄태현 음대 04
△여난실 사대 82 △오정균 공대 09
△원연희 음대 73 △유원근 농대 71
△유정갑 AMP 33 △유주열 문리대 66
△유혜림 음대 09 △윤미강 자연대 16
△윤영준 농생대 99 △윤윤영 문리대 65졸
△윤은숙 사대 61졸 △윤종호 공대 95
△윤주식 대학원 80 △이근윤 법대 76
△이기섭 사대 72 △이동수 공대 13
△이성헌 인문대 83 △이세찬 공대 07
△이수범 농생대 96 △이승령 미대 67
△이승민 생활대 99 △이승완 HPM 9
△이신애 융대원 16 △이양우 의대 63
△이영기 농대 73 △이영진 농대 73
△이원우 경영대 78 △이원표 인문대 05
△이유경 법대 00 △이재홍 상대 57
△이 정 농생대 93 △이정섭 공대 12
△이정아 음대 00 △이정우 경전원 18
△이종태 농생대 93 △이지연 치대 10
△이지원 AMP 84 △이지형 인문대 11
△이충구 공전원 18 △이태석 공대 10
△이 형 사대 60 △이호준 공대 05
△이 훤 인문대 99 △임성종 경영대 03
△임성환 공대 00 △임하린 공대 10
△장성원 법대 87 △장영배 농생대 84
△장철호 치대 84 △전장덕 행대원 99
△정나나 사대 04 △정진태 공대 80
△정창조 농대 50 △정현주 약대 00
△정혜진 보대원 04 △정 홍 의대 67
△조병구 법대 93 △조성일 공대 94
△조은지 농생대 11 △지선범 공대 04
△지해범 인문대 79 △채 일 농생대 89
△최경희 간호대 71 △최성권 공대 99
△최송화 사대 00 △최승주 공대 72
△최윤백 의대 67 △최익재 상대 68
△최인종 사회대 89 △최재선 공대 95
△최준걸 사회대 92 △최지자 미대 63
△최진숙 법대 86 △최훈성 수의대 06
△한영남 공대 74 △한태화 경영대 89
△홍기원 인문대 87 △홍승재 법대 96
△홍혜원 사회대 96 △황수연 사대 80

연회비 - 이사
◆인문대 △이용운 00 △임미화 83
△정기문 90 △조형동 84
◆사회대 △배세달 77 △이두희 77
△조용흥 76
◆자연대 △박제근 84 △이상영 75
△조성현 81
◆경영대 △최지언 01
◆공대 △강희창 83 △김덕재 54
△김성언 71 △김성환 66 △김정기 68
△신현식 69 △인응식 69 △정수완 95
△주기태 69 △한영철 69 △허욱렬 70
△황성환 95
◆농대 △권오진 52 △김영섭 65
△목세균 63 △백주은 75 △손정태 76
△유용률 66 △윤경섭 65 △윤여창 53
△이병일 57 △이희수 80 △홍종진 57
△김한주 87 △이요한 95 △장남산 87
△허근영 87
◆문리대 △김기주 54 △김양배 57
△김창락 56 △김흥규 69 △문무홍 67
△유종탁 56 △이문규 61 △이상열 71
△이용태 53 △정병오 74졸 △최 웅 69
△한동목 59
◆미대 △조성애 64 △홍정희 53
◆법대 △김득환 79 △김영훈 54
△김흥면 72 △김희주 84 △백윤수 65
△서창희 82 △오연균 76 △윤경희 65
△이경환 75 △이동명 75 △이종진 67
△임태수 56 △조동주 53
◆사대 △김충언 58 △배영철 79
△설동균 68 △오두범 64 △이계현 72
△이병필 88 △이현재 57 △정주섭 52
△정해자 61 △황승기 69
◆상대 △권영대 56 △김명준 62
△박병준 51 △박승규 51 △서병민 66
△서원호 59
◆생활대 △김지영 69
◆약대 △이상희 62 △주경식 62
◆음대 △김숙이 73 △박정욱 78
△심선화 72 △이오규 70 △한혜자 61
◆의대 △박충학 71 △유성열 71
△이혜선 81졸
◆치대 △이종혁 74 △이준수 11

△김한규 84 △남예현 16 △민홍식 03
△박인오 83 △박정원 12 △방성환 13
△변우진 55 △성민제 09 △손광민 01
△안규종 78 △양달수 79 △우정훈 99
△유웅준 91 △이수길 64 △이시우 85
△이영빈 11 △이우현 52 △이호섭 80
△임창일 82 △장옥룡 52 △장현봉 76
△장홍규 14 △정상진 68 △정연택 11
△정을호 68 △정자철 77 △정재택 58
△조용석 95 △조용재 51 △지성희 72
△최상호 14 △최준명 07 △한민호 00
△허성윤 90 △홍건영 88 △황수정 16
◆농대 △강경하 74 △권원중 56
△기우석 75 △김석문 81 △박경한 60
△박길수 62 △박원기 77 △안상원 74
△오상수 67 △온형근 79 △유장열 68
△윤석권 60 △이관선 54 △이순혁 59
△이윤환 60 △이익수 70 △이장환 58
△이정원 70 △이찬복 69 △장석효 67
△장우상 63 △조용기 81 △한휘석 57
△김세현 04 △김응찬 11 △마종선 82
△민재용 08 △박석하 95 △신찬석 87
△안경선 13 △오지석 09 △윤서진 91
△임영아 02 △전민수 93 △지산형 09
△채 일 89
◆문리대 △강낙중 56 △김남진 59
△김만옥 59 △김명혁 56 △김선리 64
△박청일 61 △유일현 59 △이상근 55
△정삼윤 64 △최윤현 61 △홍승표 59
◆미대 △김덕희 54 △김승환 06
△김예람 17 △김우리 17 △김유정 07
△김태우 12 △유인수 66 △이길종 60

△홍성호 95
◆대학원 △안건훈 74 △오성삼 77졸
△임대윤 84
◆치대원 △연제웅 07
◆행대원 △배기탁 12 △장완호 95
△전상우 10
◆AMP △김세래 46 △박근학 51
△이원복 47 △이재민 63 △정건택 21
△정회옥 82 △조문규 51 △최민호 78
◆AIP △권오열 22 △이태화 16
△전영하 28
◆ACAD △김종구 47
◆ABP △이상래 24
◆SGS △정해순 15 △최상석 02
◆HPM △김병수 09 △사재훈 20
◆AIC △김정구 03 △남호연 04
◆AMPFRI △이종무 11 △조병주 40
◆ACPMP △임전수 06
◆GLP △김태일 04 △류명선 21
△문현모 35 △안동일 37 △이대욱 35
◆ALP △오은영 25 △이선광 23
◆SPARC △고정민 34 △이상원 31
◆AFP △박정배 16 △장형철 25
◆FNP △이명춘 03 △임신재 09

연회비 - 일반
◆통합이전 △김명자 45 △양만규 45
◆인문대 △김호연 75 △민유진 10
△박상현 13 △양두석 69 △염정결 17
△이동환 83 △이용민 00 △이정재 86
△이주은 16 △장병윤 97 △최진수 16
△한상희 83 △홍 비 13
◆사회대 △김정한 90 △박경민 14
△성소진 15
△신수정 95
△안병학 93
△유선윤 88
△윤성민 14
△이근형 81
△이세준 82
△이승관 81
△이시은 02
△이양우 13
△임선호 85
△채규성 76
△최철영 01
△홍성찬 95
△홍승석 85
◆자연대
△김근모 00
△김민준 14
△김용훈 10
△김해진 86
△박승재 16
△변준기 16
△서연희 04
△송영욱 14
△이도훈 13
△이상민 85
△이상환 12
△이정훈 95
△장윤서 13
△추현욱 86
△황병천 72
△황치원 14
◆간호대
△김경선 99
△임미현 03
◆경영대
△김민지 15
△김운호 88
△남지원 07
△우경식 12
△유진석 09
△이재형 03
△전경호 77
△허진수 12
△황 백 72
◆공대
△김다니 07
△김도현 88
△김민성 16
△김인선 65
△김정수 67
△김정훈 06
△김주희 15
△김지수 04

△이동호 64
◆법대 △김보비 01 △박상열 75
△박세철 51 △박주철 17 △박주환 63
△박준하 08 △박창훈 78 △서봉하 91
△신중대 65 △이동헌 63 △주영환 90
△차맹진 56 △최경락 67 △현옥순 55
△홍성환 81 △황경진 52
◆사대 △강남주 14 △김경래 01
△김성렬 58 △김성문 82 △김순오 55
△김용선 67 △김창석 14 △김필수 57
△김형욱 91 △박선영 17 △박성근 66
△박창만 65 △변희준 58 △신동진 03
△양인환 52 △이강하 55 △이현순 53
△임광수 68 △장윤석 60졸 △정경섭 64
△정문환 56 △정수웅 62 △조병완 53
△조혜지 10 △주봉노 55 △주상훈 02
△채우기 58 △최 단 16 △황광수 56
◆상대 △김수응 69 △김신정 65
△김홍배 63 △나중헌 54 △남윤우 60
△신문철 52 △신중현 56 △안영목 57
△유봉단 53 △이명기 63 △조용구 59
△황정길 62
◆생활대 △류지영 88 △신향숙 76
△원누리 10
◆수의대 △김배원 60 △이강현 84
△이강훈 58 △조광영 54 △최위영 58
◆약대 △강선미 98 △강유빈 17
△김계옥 72 △김영길 61졸 △민병희 55
△박규호 54 △성하빈 16 △손근영 98
△신기채 80 △이유정 16 △채영주 52
◆음대 △김난아 91 △김효경 54
△노경아 84 △박혜지 10 △서정민 16

△엄태현 04 △오민정 06 △이민나 00
△전인창 88 △정상열 81
◆의대 △곽충희 14 △김도희 16
△박지은 18 △서정교 14 △이동환 67
△정용화 56 △정윤섭 79 △최윤백 67
◆자유전공 △성용민 13 △신도형 12
◆치대 △김종화 99 △안병관 52
△임형순 63
◆대학원 △변동현 77졸 △표내숙 82
△한성수 80
◆경전원 △안현주 06
◆경대원 △박영휘 90 △손영수 68
◆보대원 △김익수 91 △이지은 92
◆행대원 △김광림 80졸 △양재성 80졸
△이종련 66
◆융대원 △김대겸 12
◆국농원 △김서우 18
◆AMP △유영걸 26 △정동락 52
△정하덕 23 △황규홍 57
◆AIP △이광희 62
◆ACAD △김종해 71 △박동근 41
△서찬교 40 △최동화 29
◆APC △황수경 08
◆AMPFRI △이민주 41
◆GLP △임헌수 15
◆SPARC △윤상기 01 △임경란 36
◆AFP △박상국 01
◆ASP △이정근 05 △하홍식 33
◆AWASB △김종우 07

동문칼럼

천재가 나올 수 없는 나라

이준구
경제68-72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2006년 31살의 나이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메달을 수상한 타오(T. Tao)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천재성을 보였다. 그는 아홉 살에 대학 수학과목을 수강했고, 열 살 때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해 동메달을 땄다. 그 다음해에는 은메달,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금메달을 땄는데, 그 때의 나이가 열두 살이었다. 대회 역사상 금·은·동메달 모두 그가 최연소 수상자의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에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가 꽤 많지만, 타오처럼 대스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없다. 비록 수학뿐 아니라 어느 학문분야를 보아도 우리나라 출신의 천재 학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학 분야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이름난 고만고만한 학자가 꽤 있지만, 스티글리츠(J. Stiglitz)나 크루그먼(P. Krugman) 같은 스타급 경제학자는 이제껏 배출된 바 없다.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는 보통의 능력을 가진 열 명의 학자가 한 명의 천재를 이길 수 없다. 학문의 프론티어를 개척해 가는 것은 언제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의 몫이었다. 어떤 학문이 발전해온 역사는 기라성같은 천재들의 화려한 퍼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퍼레이드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찾아보고 싶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세계 여러 나라들 중 어린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청소년들 학업 성취도의 국제비교를 보아도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에서 떨어져 본 일이 없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청소년들인데, 왜 성인이 되어 무한경쟁의 장으로 들어가면 이내 쪼그라들고 마는가? 오히려 우리보다 잘살지도 못하고 인구도 더 적은 나라에서 가끔 스타들이 나오곤 하는데 말이다.

내가 보기에 문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데 있다. 간신히 말문이 트인 어린애를 영어학원으로 내몰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육 아니던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수학의 정석'을 공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지적 호기심에서 천재성 싹터
시험 줄이고 사색할 시간줘야

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눈만 뜨면 공부, 공부하면서 들볶아대니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날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적 호기심이 싹튼다면 그건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서른둘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인도의 천재 수학자 라마누잔(S. Ramanujan)은 정식 수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어릴 때 과일가게 앞을 지나다가 오렌지가 층층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수열을 생각해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렇게 천재성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지적 호기심에서 그 싹이 트는 법이다. 공부하라고 몰아대는 부모의 성화는 오히려 지적 호기심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역효과를 낸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신동'이라는 말을 듣는 어린이들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그들 중 진정한 천재로 성장한 경우는 하나도 본 적이 없다. 부모의 욕심으로 선행학습을 통해 억지 신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적 호기심이 퇴화해 버리는 비극이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행하는 선행학습은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말살해 버리는 암적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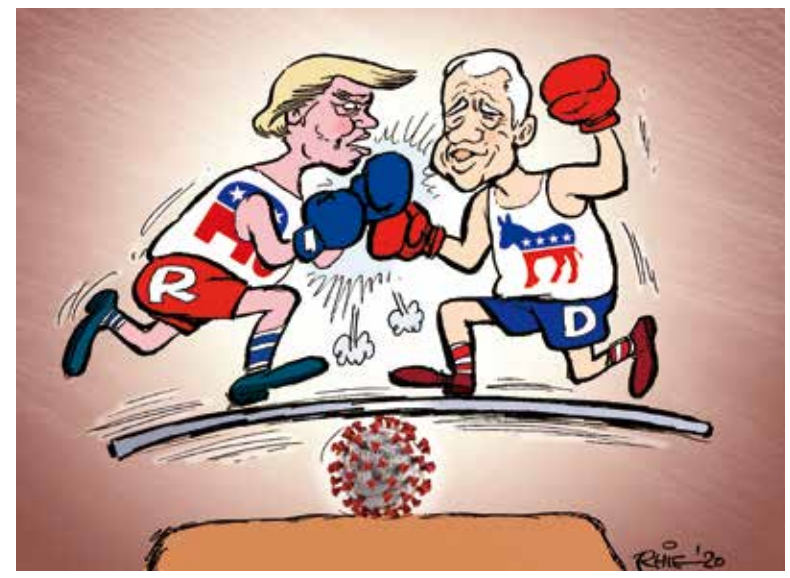
우리 교육은 천재는커녕 창의성 있는 인재조차 키워내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대학 수시모집제도를 도입한 명분 중 하나가 창의성 있는 인재를 찾아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대학에서 가르쳐본 경험에 따르면, 수시모집제도 도입 이후 들어온 학생이 더욱 창의적이라는 느낌이 결코 들지 않는다. 그저 시험성적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나아진 점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나는 우리 교육의 문제가 쓸모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데 있다고 본다. 예컨대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은 그 후의 내 인생에서 하등 쓸모가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느라 내 청춘을 바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데 쓸 시간을 동서고금의 고전을 읽는 데 썼다면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생각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워낸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뿐만 아니라 재미없는 공부만 강요하는 우리 교육은 모두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관한 국제비교를 보면 우리가 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비단 공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가정교육이 갖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지도 모른다. 우리 어른들이 대오각성하지 않는 한 공부에 찌든 불행한 청소년들의 행진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만평

이원복 건축66입 덕성여대 명예교수



느티나무 칼럼

호모 에루디티오와 나훈아

김영희
고고미술88-92
한겨레 총괄부국장
본지 논설위원

'가황' 나훈아가 언택트 콘서트에서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에 SNS 공간이 시끄러웠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일까, 정치적 논란이 된 말들보다 마음에 꽂힌 건 이 말이었다. "우리가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서 끌고 가야 한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 세월한테 끌려가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안 가본 데도 한 번 가 봐야 한다. 안 하던 일을 해야 세월이 늦게 간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전문가들의 노후설계 조언이 넘쳐난다. 대부분은 노후 적정자산이나 연금 불리기 방법 같은 내용이다. 가끔 정년 뒤 봉사의 삶을 살거나 산골로 들어가 농사짓는 유명인사 사례에 감동받지만, 솔직히 재능 있고 여유 있는 이들의 이야기라고 느껴질 때가 많다. 작더라도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는 노후설계는 공허하다.

어느 날 7살 터울 남편이 적금 하나를 따로 붓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주식도 부동산도 평생 흥미 없던 사람인데 몇 년 뒤면 정년이니 가계를 책임질 아내를 생각해 목돈을 마련해두려나, 순간 '계 타는' 기분마저 들었다. 착각이었다. "퇴직하면 혼자 차 끌고 세계일주 하려고 모으는 돈이야."

하긴 우리 부부는 늘 '60살까지 일하고 몸이 건강한 70살까진 열심히 놀자'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니 퇴임 뒤 내 정년까지 7년을 기다리라 할 순 없는 일이다. 남편은 주말이면 차박과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독파하기 시작했다. 간단한 정비기술은 갖춰야 한다며 자동차 정비 공부를 하고, 세계를 누비는 계획을 세운 김에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학도 틈틈이 진행 중이다. 따로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엔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가 널렸다.

평생 배우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로 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시대,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곁에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독자 계획'을 세운 남편이 여전히 얄밉지만, 나보다 한발 앞서 '세월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연습하는 그를 응원해볼까 한다.

미래를 향한 전진
IEEE SAE 가 함께합니다
5G 무선통신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중요한 기술을
IEEE와 SAE에서 만나세요

IHS Markit SAE INTERNATIONAL IEEE Authorized Dealer in Korea KITIS 키티스 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대표 홍영표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종신이사)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면…

동숭로에서

김원곤
의학72-78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

학창시절 시험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특히 제2외국어의 경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흘러가는 호기심 이외에는 그 속에 뛰어들 그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었다. 서울의대 교수에다 위상이 드높은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라는 안정된 상황에서 근무하면서 영어만 제대로 하면 그것으로 이미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춘 셈이었다.

그런데 2003년 어느 봄날, 장차 개인적 운명의 전환점이 될 생각 하나가 나비같이 살포시 마음 한 곳에 내려앉았다. '이제 우리 나이로 오십이 되었는데 더 늦기 전에 외국어를 하나 더 배워 두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궁리 끝에 결국 일본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그해 6월 학원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할 계획이었다. 다른 외국어 공부는 그 어떤 가상 플랜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2년 후인 2005년 일본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중국어까지 공부하여 한, 중, 일 3국의 언어를 같이 비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실제 실행에 옮기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이미 던져진 운명의 주사위는 관성의 힘으로 두 번 더 굴러갔다. 2006년에는 프랑스어 공부에 뛰어들었고, 그 이듬해인 2007년에는 스페인어를 마지막으로 추가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공부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시작으로만 따지자면 20~30개 외국어인들 개인 이력에 추가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결국 문제는 배운 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사서 고생도 그런 사서 고생이 없었다.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장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매일 일정 시간을 외국어 공부에 할애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옆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놓아두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해 걷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공부에 자극을 주기 위해 '학습 동기 유발 테크닉'도 써보았다. 자원해서 1년 내에 3개월 간격으로 각각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고급 자격시험에 도전하여 모두 합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운이 작용했는지 결과적으로 2011년 3월 중국어 HSK 6급 합격, 7월 일본어 JLPT N1 합격, 11월 프랑스어 DELF B1 합격, 마지막으로 2012년 5월 스페인어 DELE B2 합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2019년 8월 마침내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년 3년 전쯤인 어느날 와이프가 문득 한마디를 던졌다. '3년 후에 정년 퇴임하면 어학연수를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때요?' 뒤늦게 시작한 어학 공부에 대한 남편의 열정을 평소 옆에서 지켜보면서 남편에게 주는 퇴임 기념 선물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생각할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짧지 않은 개인적 어학 공부 여정에 유종의 미를 찍는 일이며 그동안 노력의 체면을 살리는 길이라고 여겨졌다.

결심이 서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생각 끝에 2019년 8월 정년 퇴임 후 반년간의 준비를 거친 뒤 2020년 3월부터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의 순서로 각각 3개월씩 어학연수를 하고 중간중간에 3개월씩 재충전 기간을 갖는 총 2년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계획을 2019년 8월 말에 있었던 서울의대 정년퇴임식장에서 퇴임사를 빌려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난 3월 2일 스페인어 연수를 위해 페루로 출국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상황 변화로 금년에 계획된 프랑스어 연수를 내년으로 미루고 그 대신 페루에서의 스페인어 연수 기간을 늘려서 현재 공부 중이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의 힘이 아니라면 평생을 의대 교수로 지낸 사람이 4개국어 어학연수에 뒤늦게 도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

*김 동문은 모교 의대 흉부외과 교수에서 2019년 정년 퇴임했다. 근육 단련과 외국어 공부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다수의 관련 에세이를 출간했다. 페루에 머무르며 네이버 '짱구아빠의 블로그'에 어학연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모교 옥상녹화 사업에 동문 참여 기다린다

동문기고

한무영
토목공학73-77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서울대는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이 매우 많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매우 창피한 일이다.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임으로 구성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자.

쉽게 물 사용량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다. 학교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은 수세변기이다. 현재 1회 사용시 13리터씩 들어가는 수세변기를 4리터짜리 절수형 변기로 바꾸면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대 8,000개의 수세변기 중 2016년 500개의 변기를 바꾼 후 2017년에 약 10만 톤의 물과 2억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줄였다.

35동 옥상에서 꽃밭과 채소밭을 만들어 물, 에너지, 식량, 공동체 구성원의 친목의 장을 만든 사례가 있다. 홍수와 가뭄, 폭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성원들과의 공동체를 만든 모범사례다. 서울대 내의 200개 빌딩의 옥상에 떨어진 물을 관리하거나 옥상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옥상녹화를 하는 데 서울시에서 70%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더욱 모금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50만원이면 모교의 건물 옥상에 땅 1평을 창조할 수 있다.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15만원이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성공이 확실한 사례는 이미 많은 언론보도에 의해 검증을 받아 왔다.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동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탈출하는 사회적 선도 역할을 해보자.

본인이 졸업한 과가 있는 건물에 절수형 수세변기를 한 개씩 기부하는 운동을 펼치자. 또는 그 건물에 옥상녹화 1평씩을 만들도록 기부를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졸업생들이 지역주민, 학생들과 함께 소일거리 삼아 가꾸어보자. 그러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셈이 된다. 각 과별로 성과를 공표하여 선의의 경쟁을 해보는 건 어떨까. 물과 전기 요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서울대의 사회적 위상을 바꾸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내에 '기후위기 대응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펀드를 이용하여 ① 서울대의 기후위기 대응하는 시설의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② 절수 아이디어 내는 분께 인센티브 제공 ③ 절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 등을 한다.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매칭 펀드를 제공하여 권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대학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이 다른 대학교에도 번지고, 사회 전체를 절수형 사회로 만드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

과거의 대학이 문맹을 탈출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21세기 서울대의 역할은 전 국민을 '물맹 탈출' 시키는 것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16년에 서울대평의원회에 절수형 캠퍼스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간단히 할 수 있고 성공이 보장된 절수형 캠퍼스를 성공한 후, 그 노하우를 이용하여 전기, 쓰레기 등 다른 분야로 전파시킬 것을 제안한다.

문의: 010-4354-0946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이희범 **편집인** 이승무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 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or.kr
광고기획 한우리 SJM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CC오토그룹 10만대 출고기념 프로모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한 KCC오토그룹이 출고 고객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Smart Tire Promotion

KCC오토그룹 '안심'시리즈 스마트타이어 프로모션

대상 고객
KCC오토, KCC오토모빌, 아우토슈타트, KCC모터스 출고고객
[5개 Brand : 벤츠, 재규어, 랜드로버, 포르쉐, 혼다]
*프로모션 상세 조건은 각 전시장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
2020년 9월 1일 ~ 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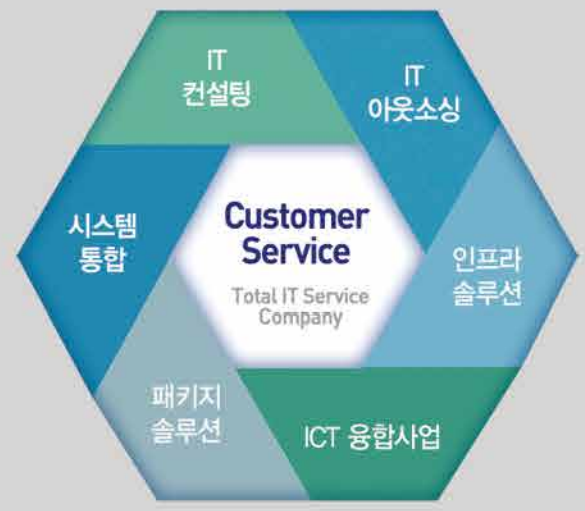
대상 상품
웰컴패키지 (Smart Care) 지원 프로그램
- 타이어 안심 서비스 제공

· KCC오토 02-6355-0010 · KCC오토모빌 02-6965-6000 · 아우토슈타트 1670-9110 · KCC모터스 02-6090-6000

KCC오토그룹 | KCC오토 Mercedes-Benz | KCC오토모빌 JAGUAR LAND ROVER | 아우토슈타트 PORSCHE | KCC모터스 HONDA

상상을 현실로!
ICT혁신을 통한 편리한 세상!

새로운 시대에 끝없이 도전하는 창조적 선두주자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전문기업

KCC정보통신은 한발 앞선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창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정보사회의 리더 - KCC정보통신은 IT전문가 집단입니다.

KCC정보통신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65 KCC오토타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0-4번지) TEL 02-6090-7800 FAX 02-6090-7999 홈페이지 http://www.kcc.co.kr/